

# 수학능력시험에서 경제 과목 선택에 대한 연구

이 성 표

(KDI 경제정보센터 전문위원)

# 목 차

제 1 장 서론 .....	1
제 2 장 설문조사 결과 .....	5
2-1 일반사회 경제 .....	5
2-2 심화과정 경제 .....	8
2-3 학습 환경 및 기타 .....	11
2-4 수학시험 .....	16
2-5 교사 설문조사 결과 .....	17
제 3 장 경제수업 현황 .....	20
3-1 학교별 경제수업 .....	21
3-2 지역별 경제수업 .....	23
3-3 개별 학교로 본 경제수업: 수요 요소와 공급 요소 .....	23
제 4 장 수학능력 시험에서의 경제 선택 .....	27
4-1 경제과목 선택 요인 .....	27
4-2 자발적 동기, 흥미에 대한 분석 .....	34
4-3 특별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 .....	36
제 5 장 결론 및 향후 과제 .....	38
참고 자료 .....	41
<부록 1> 설문조사에 응한 학교 분포 .....	42
<부록 2> 설문 조사 결과 개요 .....	43
<부록 3> 학교 경제교육 환경에 대한 조사(수학) .....	54

## 제1장 서론

고등학교 학생들이 경제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또는 경제지식을 얼마나 습득했는가는 경제수업을 얼마나 어떻게 받았는가와 밀접한 관련을 가질 것이다. 학생들이 경제수업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는 물론 어떠한 형태의 수업을 받았는지도 경제 이해나 경제지식의 습득에 상이한 영향을 줄 것이다. 물리적으로 많은 시간의 수업을 받는지, 경제학을 전공한 교사에 의해 수업이 이루어지는지, 신문 기사나 기타 보조 학습자료를 활용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경제에 대한 흥미와 학습 의욕을 고취시키는 수업을 받는지 등에 따라 경제수업은 상이하다고 할 수 있다. 경제수업을 받는 학생들의 학습환경이나 개인적인 지적 능력도 경제지식의 습득 정도는 물론 경제수업의 형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는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제수업은 어떠한 모습인지 살펴보고 수학능력 시험에서 경제과목을 선택하는 데에는 이러한 경제수업의 모습 중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주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고등학교의 경제수업이 어떠한 모습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했듯이 다양한 차원에서 시도가 가능하겠지만 매우 특별한 틀을 통해 파악하기 보다는 고등학교의 경제수업이 지향하는 즉, 경제지식을 가급적 많이 습득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경제수업의 형태나 그러한 경제수업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요소들에 대해서 알아보하고자 한다.<sup>1)</sup> 또한 경제수업이 학생들의 경제에 대한 지식과 이해의 정도를 높이겠지만 고등학교라는 특성을 감안한다면 특히 심화과정 경제 수업을 경유하지 않고는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고등학교에서의 경제수업의 목적은 학생들에게 경제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현실 경제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기 위함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수학능력 시험에서 학생들이 경제를 선택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수학능력 시험에서 경제를 선택할 것인지 선택하지 않을 것인지는 경제수업이 학생들의 욕구에 맞추어져 이루어지고 있는지, 시험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예측하는지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경제수업에 영향을 줄 만한 사항을 찾아보는 데에도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우선 학교에서의 경제수업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그리고 교사들은

---

1) 우리 경제의 현안에 대해 고등학생들이 토론수업을 얼마나 많이 하고 모듈별로 그 해결 방안을 얼마나 잘 찾아내는가 하는 관점에서 경제수업을 판단하거나, 제시된 교과서 관련 문제들을 얼마나 잘 푸는가 하는 관점에서 수업이 얼마나 잘 수요되고 공급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경제수업이 주로 강의 위주로 이루어지겠지만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학습자료의 활용은 어떠한지, 학생들의 내적 학습욕구와 외적 학습환경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수업을 진행하는 데에 어떤 점들에 대해 부족함을 느끼는지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몇 가지를 살펴보는 것은 유용하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제1회 '전국 고교생 경제경시대회'를 실시하면서 조사한 설문 결과는 다음과 같다.<sup>2)</sup>

첫째, 대부분의 학생들(88.1%)은 학교에서 배운 경제지식이 경제문제 이해에 도움이 되며 졸업 후 사회생활에도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둘째, 학생들은 경제지식을 주로 신문·잡지(36.4%)에서 얻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교과서·참고서(28.4%)를 꼽고 있었다.

셋째, 학생들은 경제과목을 이해하는 데에는 선생님들의 충실한 강의(49.3%), 멀티미디어 학습자료(22.9%)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넷째, 교사들은 경제과목을 가르치기가 어렵다(33.3%)는 의견을 많이 보였으며 수업에서의 애로 사항으로 보충학습 자료의 부족(25.0%)을 들었다.

다섯째, 교사들은 학교 현장에서 경제과목을 가르칠 때 가장 필요한 자료로 애니메이션 등 멀티미디어 자료(52.4%)를 꼽았으며, 경제교육 전문 사이트가 경제교육에 도움이 되려면 현실 경제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해설 자료를 실어야 한다((38.1%)는 의견을 보였다.

위의 설문결과는 경제수업이 학생들의 경제 이해를 높이는 데에 중요하다고 보이지만 좀 더 흥미를 줄 수 있는 자료와 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비록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경제학 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이 거둔 성적과 상관관계를 가지는 요인으로 무엇이 있으며 그 상관 정도는 어떠한가에 대한 몇몇 연구 논문들도 경제수업을 구성하는 요인들을 찾아보는 데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한다. 몇 편의 관련 있는 논문들을 살펴본 결과, 경제 이해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로서 ① 대학교, 고등학교에서의 평균 성적, ② 분석 시점 이전에 경제학 과목을 수강했는가 여부, ③ 수학 성적, ④ 교수의 수업 내용, 그리고 ⑤ 학생의 학습욕구 등이 지적되고 있었다.<sup>3)</sup> 여기서 교수의 수업 내용이란 현실에 대한 흥미로운 예를 얼마만큼의 비중으로 수업하는가 또는 수업에 흥미를 주는 학습방법을 사용하는가 등을 말하며, 학생들의 학습욕구는 출석률이나 경제학 공부에 얼마만큼의 시간을 투자하는가 등을 말한다.

2)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고등학교 경제경시대회 관련 설문조사」(보도자료), 2004. 2.

3) Krohn, Gregory A. and O'Connor, C. M., "Student Effort and Performance over the Semester," *Journal of Economic Education*, Winter 2005, 36, pp. 3-28; Durden, Garey C. and Ellis, L. V., "The Effects of Attendance on Student Learning in Principles of Economics," *American Economic Review*, May 1995(Papers and Proceedings), 85, pp. 343-346; Romer, Romer, "Do Students Go to Class? Should They?"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Summer 1993, 7, pp. 167-174; Ballard, Charles L. and Johnson, M. F., "Basic Math Skills and Performance in an Introductory Economics Class," *Journal of Economic Education*, Winter 2004, 35, pp. 3-23.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경제수업의 모습이나 경제지식의 습득 정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생각하기에 따라 많은 경우가 있을 것이지만, 일단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위에서 논의한 사항들이 경제수업을 어느 정도 규정할 것이라는 판단 아래 위의 논의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 <표 1-1>과 같다. <표 1-1>은 위에서 언급된 사항들, 즉 고등학교에서 경제과목을 선택하였는가, 수업시간에 학습자료를 얼마나 활용하는가, 경제 공부에는 얼마나 시간을 할애하는가, 그 외에 학생 개인의 학습능력은 어떠한가 가정환경은 어떠한가, 학교에서 선생님들에 의해 제시되는 경제수업은 어떠한가 등을 크게 학생들의 학습동기, 개인능력, 가정환경 및 학교에서 선생님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수업으로 나누어 놓고 있으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관련 사항들을 파악할 것인가도 보여주고 있다.

이제 문제는 이러한 자료를 어떻게 획득하는가이다. 이를 위해 전국의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설문조사는 <표 1-1>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되 약간의 추가적인 문항을 넣기로 하였으며, 설문에 응하는 학생들의 학교 내 성적을 구하기가 어려운 관계로 수학문제로 개인의 능력을 측정하기로 하였다. 또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학교에서 심화과정 경제든지 아니면 일반사회 중 경제 단원이든지 경제를 가르치는 교사들에게도 경제수업을 진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기로 하였다.<sup>4)</sup> 설문조사의 대상 학생들은 한국개발연구원이 2004년 2월과 2005년 1월 실시한 ‘전국 고교생 경제경시대회’에 다수의 학생들이 참여한 전국 29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는 2005년 6월 중순부터 7월 중순 사이에 실시하였다.<sup>5)</sup> 설문조사에 응한 총 응시학생은 1,548명이며 인문고가 22개, 특목고가 6개, 실업고가 1개교였으며 52명의 교사가 교사설문에 응답해 주었다. 이러한 내용은 <부록 1>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설문은 ① 일반사회의 경제 단원 수업과 관련한 사항, ② 심화과정 경제를 공부하는 과정과 관련한 사항, ③ 부모와 가정의 환경, ④ 수학문제 등을 학생에게 제시하기로 하였으며, 교사들에게는 ① 경제학 전공 여부, ② 강의 경력, ③ 경제수업을 어떻게 제공하는가를 질문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표 1-1>의 3, 4열에 자세히 나타나 있다.

다음 2장에서는 학생과 교사들에게 제시한 질문들에 대한 응답 결과를 학교별, 지역별 중심으로 살펴본다.<sup>6)</sup> 학교별, 지역별로 응답 결과를 살펴보는 이유는 경제에 대한 이해 정도에 있어서 학생 개인들의 특성 외에 학교별, 지역별 등의 학습환경

---

4) 일반사회, 또는 사회라고 하는 과목은 모든 학생들이 1학년 공통과정에서 배우게 되는 과목으로 그 중 일부 단원은 경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5) 최초에는 114개교에 설문조사의 취지를 밝힌데 대해 긍정적인 응답을 보낸 학교는 48개교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조사 일정을 정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인 도움을 받은 학교는 29개교로 줄어들었다.

6) 학교별 분류는 인문계 일반 고등학교인가, 특수목적 및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인가, 또는 실업계 고등학교인가에 따라 인문고, 특목고, 실업고로 분류함을 말하며, 지역별 분류는 해당 고등학교가 특별시, 직할시를 포함하여 광역시 이상의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이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가에 따라 중소도시로 분류한 것을 말한다. <부록 2>에서는 조사의 단순 결과를 그림으로 볼 수 있다.

요인들이 집단 형태의 경제수업 모습을 잘 설명할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제3장은 학생과 교사들에 의해 제시된 응답 결과를 토대로 학교별, 지역별 경제수업의 모습은 어떠하며 인문고, 특목고, 또는 대도시, 중소도시 고등학교 등에서의 경제수업 간에 어떠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살펴본다.

〈표 1-1〉 학교 경제수업을 구성하는 요인과 설문문항

구성 분야	구성 요인	설문조사 문항	설문 대상
학습동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화과정</li> <li>· 수능 관련</li> <li>· 경제 공부시간</li> </ul>	· 일반사회 경제 수강 여부	학생
		· 일반사회 경제 공부에 할애한 시간	
		· 심화과정 경제 수강 여부	
		· 심화과정 경제 수강 이유	
		· 심화과정 경제 공부에 할애한 시간	
		· 향후 수능에서 경제 선택 여부	
개인능력	· 수학 능력	· 수학문제에 대한 정답 평균	
가정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분류</li> <li>· 부모 환경</li> <li>· 가정 환경</li> </ul>	· 부업 여부	
		· 주당 부업시간	
		· 부모님 직업(부)	
		· 부모님 직업(모)	
		· 가구소득	
		· 부모 학력(부)	
		· 부모 학력(모)	
		· 가족 중 경제학 전공	
학교수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학 전공</li> <li>· 경제 강의 경력</li> <li>· 학습방법</li> <li>· 특별활동</li> </ul>	· 일반사회 경제 수업 중 학습자료 활용 빈도	교사
		· 심화과정 경제 수업 중 학습자료 활용 빈도	
		· 경제 담당 교사의 전공	
		· 교사 경력	
		· 심화과정 경제 경력	
		· 일반사회 경제 경력	
		· 경제수업에서 학습자료 활용	
		· 경제 관련 특별활동 실시	
		· 학습자료 제작	

주 : 1) 심화과정 경제란 사회탐구 관련 선택과목 중 경제를 말한다.  
 2) 심화과정에 관련한 사항들이 관심사이지만 일반사회의 수업에서는 어땠는지도 함께 질문하고자 하며, 가족(부모, 형제, 삼촌 이내) 중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이 있는 경우 어떤 영향을 받는 지 등도 추가로 묻기로 하였다. 또한 학생들의 개인적인 수학 능력을 파악하는 데에는 학교 내에서의 평균 성적을 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할 것이나 이러한 정보는 지극히 구하기 어려워

7) 1, 2회 전국 고교생 경제경시대회에서 시험 성적에 영향을 주는 집단별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를 참조할 수 있다. 한국개발연구원, 『학교 경제교육의 활성화 방안』, 2004. 3. 및 2005. 2.

대신 수학문제에 대한 결과로 대신하기로 하였다.

제4장은 설문조사의 결과를 이용해 수학능력 시험에서 경제를 선택함에 여타의 다른 조사 항목들과는 어떤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해 본다.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은 설문 항목들은 크게 학습동기, 수학능력, 가정환경 및 학교수업 등 4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내적으로는 학교수업이 충분하게 이루어지면 학생들은 경제과목에 대한 흥미를 보다 많이 갖게 될 것이며, 그 결과 수학능력 시험에서 경제를 보다 많이 선택할 것이라는 가정을 내포하고 있다. 물론 가정환경이 경제과목에 대한 학습동기 유발은 물론 수학능력 시험에서 경제과목을 선택하고자 하는 경향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도 가정한다. 이번에 조사한 자료에는 바람직한 경제수업을 받았을 경우, 그 결과로서 예견되는 경제 이해 내지는 경제지식을 측정하는 항목이 없다. 하지만 수학능력 시험에서 경제를 선택할 것인가의 결정 여부는 개인적인 동기와 경제수업에 대한 수요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적인 요인들, 즉 가정환경이나 교사에 의한 수업의 공급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판단되는 까닭에, 수학능력 시험에서 경제를 선택하는지의 여부와 여타 다른 항목들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경제수업에 대한 흥미 있는 또 하나의 설명을 더하는 것은 물론 향후 경제수업을 보다 개선시키기 위한 방안 모색에 한 단서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 제2장 설문조사 결과

설문조사는 크게 학생들에 대한 조사와 교사들에 대한 조사로 이루어져 있다. 학생들에 대한 설문조사는 크게 공통과정인 일반사회 중 경제 단원의 학습과 관련한 질문, 심화과정으로서의 경제수업에 대한 질문, 학생들의 학습환경에 대한 질문, 그리고 간단한 수학시험 등 4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교사들에 대한 설문조사는 전공이 어떠한지와 교사경력, 그리고 경제수업에 있어서 보조 자료를 얼마나 활용하는지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장에서는 학생들에 대한 4 부분에 있어서의 질문에 대한 응답 및 수학시험 결과, 그리고 교사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 2-1 일반사회 경제

첫 질문은 학생들이 사회 과목의 경제 단원을 수강했는지 여부이다. 이 질문에 대한 전체, 학년별, 학교별 응답 결과는 다음 <표 2-1>과 같다.

〈표 2-1〉 일반사회 경제 단원 수강 여부

구 분	학년별			학교별			합계
	1	2	3	인문	특목	실업	
① 수강했다	17	294	625	701	197	38	936
	17.3%	49.7%	74.2%	59.6%	66.6%	65.5%	61.1%
② 수강하고 있다	6	200	167	275	95	3	373
	6.1%	33.8%	19.8%	23.4%	32.1%	5.2%	24.4%
③ 수강할 예정이다	66	33	3	100	2	0	102
	67.3%	5.6%	0.4%	8.5%	0.7%	0%	6.7%
④ 수강하지 않았거나 그럴 계획이 없다	9	64	47	101	2	17	120
	9.2%	10.8%	5.6%	8.6%	0.7%	29.3%	7.8%
합 계	98	591	842	1,177	296	58	1,531

주: 1) 각 숫자 밑의 백분율(%)은 1학년, 2학년 또는 인문계 고등학교 등 소분류에 대한 항목별 응답 비율을 나타낸다.  
 2) 총응답자 수는 1,531명으로 전체 표본수 1,548명에 비해 부족한데 이는 수강여부에 대한 응답 중 17명이 답을 하지 않은 까닭이다. 2장을 통해 제시되는 조사 결과들은 응답자 수에 있어서 고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해당 문항에 대해 관련이 없거나 응답할 의사가 없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문항에 대해 응답한 학생들의 자료만으로 설문 조사 결과 표를 구성하지 않기로 한다. 응답 학생 수가 고르지 않더라도 가급적 응답한 학생들의 내용을 그대로 살펴 보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4장의 회귀분석에서는 필요한 항목들에 모두 응답한 학생, 주로 2, 3학년으로서 심화과정 경제를 수강했거나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의 조사 결과만이 이용된다.

<표 2-1>에 의하면 ① 수강했다, ② 수강하고 있다에 대한 응답 비율이 85.5%를 나타내고 있다. 대부분의 표본이 2, 3학년으로 구성되어 있음에 비추어 당연할 것이지만 ② 수강하고 있다는 응답에 의외로 2, 3학년 학생들이 눈에 띈다. 모든 학생들이 사회과목의 한 부분으로서 경제는 1학년 때에 학습하도록 되어 있음을 감안 한다면 이러한 결과는 응답자가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와 심화과정 경제와 일반사회의 경제부분 학습을 혼동했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1학년 학생들의 ③ 수강할 예정이다에 대한 비중이 많은 것은 설문조사가 실시되었던 시점까지 경제부분에 대한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시사할 수도 있다.<sup>8)</sup>

두 번째 질문은 첫 문항에서 ①과 ②에 응답한 경우, 그렇다면 경제를 배우던 시기에 학교 수업 이외에 추가로 얼마나 많은 시간을 경제공부에 할애하였는가였다. 주당 평균 시간을 적도록 한 이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 <표 2-2>와 같다.

8) 설문 조사 당시 각 학교별로 학생들이 응답할 수 있도록 모임을 주선한 교사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 질문을 다시 보냈던 바, 소수의 답변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1학년의 경우는 조사 시점까지 경제 단원을 배우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으며, 2, 3학년의 경우는 학생들이 질문을 혼동했을 가능성에 대체적으로 동의하고 있었으며 특히 특목고의 경우 교육 과정 상 학생들이 심화과정 형태의 수업을 받는 관계로 사회의 한 단원으로서 경제와 혼동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되었다. 그 외에 1학년 사회과목 중의 한 부분인 경제 단원에 대해 단지 사회라고만 인식할 뿐 그 부분을 경제 단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표 2-2〉 일반사회의 경제공부에 할애한 시간

학습 시간	학년별						학교별						합 계	
	1		2		3		인 문		특 목		실 업			
0	2	9.5%	54	11.3%	80	10.4%	97	10.3%	27	9.6%	12	30.0%	136	10.7%
0 ~ 1	3	14.3%	91	19.0%	167	21.8%	207	21.9%	49	17.4%	5	12.5%	261	20.6%
1 ~ 2	7	33.3%	133	27.7%	214	27.9%	244	25.8%	102	36.2%	8	20.0%	354	27.9%
2 ~ 3	6	28.6%	102	21.3%	160	20.9%	202	21.4%	56	19.9%	10	25.0%	268	21.2%
3 ~ 4	2	9.5%	70	14.6%	91	11.9%	135	14.3%	27	9.6%	1	2.5%	163	12.9%
4 ~ 5	0	0%	13	2.7%	30	3.9%	34	3.6%	9	3.2%	0	0%	43	3.4%
5 ~	1	4.8%	17	3.5%	24	3.1%	26	2.8%	12	4.3%	4	10.0%	42	3.3%
<b>합 계</b>	<b>21</b>	<b>100%</b>	<b>480</b>	<b>100%</b>	<b>766</b>	<b>100%</b>	<b>945</b>	<b>100%</b>	<b>282</b>	<b>100%</b>	<b>40</b>	<b>100%</b>	<b>1,267</b>	<b>100%</b>
평 균	2.38		2.26		2.26		2.27		2.22		2.34		2.26	

주: 1) 각 숫자 우측의 백분율(%)는 1학년, 2학년 또는 인문계 고등학교 등 소분류 및 시간별 전체 응답비율을 나타낸다.  
 2) 학습시간에서 0은 0시간, 0~1은 1시간 이하, 1~2는 1시간 초과 2시간 이하 등을 의미한다.  
 3) 실제 응답 시간의 종류는 0, 0.5, 0.75, 1.0, ... , 14.0, 15.0 등 24 종류에 이르렀지만 5.0시간 이상 또는 0.75, 1.25 등 사이 시간은 응답자 수가 적어 위와 같이 7단계로 단순화하였다.

무응답을 제외한 응답자 1,267명 전체의 공부시간은 0에서 15시간까지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었고 평균은 2.26시간이었으며 가장 많은 응답을 보인 시간은 2시간, 그 다음으로 1시간, 3시간의 순이었고 절반 이상이 2시간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학교별 평균 공부시간 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9)

다음으로 제시한 질문은 경제수업 중 신문기사나 파워포인트, 동영상 등의 학습자료가 얼마나 빈번하게 활용되었는가이다. 이에 대한 학교별, 지역별 응답 결과는 다음 <표 2-3>과 같다. <표 2-3>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경제수업 중 신문기사나 파워포인트, 동영상 등의 학습자료를 활용하는 정도는 1~4회가 50.7%로 가장 많았으며 전혀 활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6.0%를 나타냈다. 학교별로 보면 인문계 고등학교에 비해 특목고의 경우가 학습자료의 활용 정도가 높으며 대도시 지역 고등학교에 비해 중소도시 지역의 고등학교의 수업이 더 학습자료 활용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0) 전반적으로 학습자료가 자주 활용되지 못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시험 위주의 수업이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겠으며 적절한 자료의 부족, 그리고

9) 대도시와 중소도시 지역 학생들의 평균 공부시간의 차에 대한 표준정규값은  $z=1.63$ 으로 유의수준은  $\alpha=0.104$ 이었으며, 인문고와 특목고의 경우  $z=0.43$ ,  $\alpha=0.671$ 이었다.

10) 사회과목 중 경제부분을 수강하는 동안 교사에 의해 학습자료가 활용된 빈도가 어느 정도가 되는가에 대한 두 집단 간의 비교는 동질성 비교(homogeneity test)를 통해 볼 수 있다. 이 비교의 통계적 형태는 분할표(contingency table)를 통한 추론 방법과 동일하다. 대도시 지역과 중소도시 지역 간의 비교 결과는  $\chi^2(3)=22.27$ 로서  $\alpha=0.000$ 이었으며, 인문고와 특목고 간의 결과는  $\chi^2(3)=61.22$ 로서 역시  $\alpha=0.000$ 이었다. 여기서 ( ) 안의 값은 자유도를 의미한다.

자료를 학습해 본 결과 학습효과가 있었다든지 등 교사들의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데에도 기인할 것이다. 하지만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에 비해 특목고 학생들에게 학습자료의 활용빈도가 많았다는 응답 결과는 흥미롭다.

〈표 2-3〉 사회과목 경제수업 중 학습자료 활용 빈도

구 분	학교별			지역별		합계
	인문	특목	실업	대도시	중소도시	
① 전혀 활용 안함	290	33	17	156	184	340
	29.8%	11.3%	41.5%	30.6%	23.1%	26.0%
② 1~4회	493	148	21	258	404	662
	50.6%	50.9%	51.2%	50.7%	50.7%	50.7%
③ 5~9회	82	50	3	54	81	135
	8.4%	17.2%	7.3%	10.6%	10.2%	10.3%
④ 10회 이상	109	60	0	41	128	169
	11.2%	20.6%	0%	8.1%	16.1%	12.9%
합 계	974	291	41	509	797	1,306

- 주: 1) 각 숫자 밑의 백분율(%)는 인문계, 대도시 고등학교 등 소분류에 대한 항목별 응답 비율을 나타낸다.  
 2) 총응답자 수는 1,306명으로 전체 표본수 1,548명에 비해 부족하는데 이는 자료활용 빈도에 대한 질문에 대해 나머지 학생들이 응답을 하지 않은 까닭이다.  
 3) 학급 등 소집단 내부적으로 학습자료 활용 빈도는 동일할 것이지만 학생 개인들이 받아들이는 데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여기서는 개인들의 응답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 2-2 심화과정 경제

심화과정 경제를 수강했는가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은 다음 <표 2-4>와 같았다. <표 2-4>에 의하면 인문계 고등학교의 경우나 특목고의 경우 모두 80% 이상이 심화과정 경제를 수강했거나 수강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았을 때나 학교별로 보았을 때, 수강했거나 수강하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비율의 차이는 없다.<sup>11)</sup>

다음으로 질문한 것은 심화과정 경제를 선택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였다. 3개까지 복수 응답을 허용한 결과는 다음 <표 2-5>와 같다. <표 2-5>에 의하면 심화과정 경제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① 흥미있고 좋아서가 가장 높았으며, ② 대학 진학에 필요해서와 ③ 선택할 수밖에 없어서가 그 다음을 나타냈으며, ④ 주위의 권유로와 ⑤ 점수 얻기가 용이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 통상

11) 수강했다와 수강하고 있다는 두 항에 대한 누적 비율의 차이를 보면,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의 경우  $z=0.04$ ,  $\alpha=0.972$ , 인문고와 특목고 간의 경우  $z=0.01$ ,  $\alpha=0.993$ 이었다.

〈표 2-4〉 심화과정의 경제과목 수강 여부

구 분	학교별			지역별		합계
	인문	특목	실업	대도시	중소도시	
① 수강했다	410	60	2	182	290	472
	44.3%	20.8%	66.7%	41.6%	37.2%	38.8%
② 수강하고 있다	383	174	0	129	428	557
	41.4%	60.4%	0%	29.5%	54.9%	45.8%
③ 수강할 예정이다	67	24	0	58	33	91
	7.2%	8.3%	0%	13.2%	4.2%	7.5%
④ 수강하지 않았거나 그럴 계획이 없다	66	30	1	69	28	97
	7.1%	10.4%	33.3%	15.8%	3.6%	8.0%
<b>합 계</b>	<b>926</b>	<b>288</b>	<b>3</b>	<b>438</b>	<b>779</b>	<b>1,217</b>

- 주: 1) 각 숫자 밑의 백분율(%)는 인문계, 대도시 고등학교 등 소분류에 대한 항목별 응답 비율을 나타낸다.  
 2) 총응답자 수는 1,217명이다. ④ 수강하지 않았거나 그럴 계획이 없다 항에는 더 많은 학생들이 응답을 보일 수 있었을 것이나 심화과정 경제를 선택하지 않은 학생들 일부는 심화과정 경제에 대한 질문을 모두 응답하지 않고 다음 질문으로 건너 뛴 경우가 있어 응답자 수는 이로 인해 더 적어졌다고 판단된다.

경제가 어렵고 딱딱하다는 이유로 선택이 저조하지만 경제를 선택한 학생들은 이 과목에 흥미를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경향은 학교별로 보거나, 지역별로 보거나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소도시의 경우가 대도시에 비해 ③ 선택할 수밖에 없어서가 다소 높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심화과정 경제를 선택한 이유에 병행하여 선택하지 않은 이유도 질문하였는데 중복을 허용했음에도 총 응답자 수는 61명으로서 소수인 탓에 <표>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그 결과는 ① 어렵고 재미없어서, ② 대학진학에 필요 없어서, ③ 선택과목으로 안돼 있어서, ④ 주위에서 만류해서, ⑤ 점수 얻기가 어려워서의 다섯 가지 항목 중 ③ 선택과목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가 가장 큰 이유였고 그 다음으로 ① 어렵고 재미없어서가 지적되었다. 학교 현장에서 누구라도 원하는 교과목은 제공되어야 하는 7차 교과과정의 취지와는 달리 경제는 아직 학생들에게 충분한 공급 여건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일반사회의 경제 단원에 대한 질문에서와 같이 학생들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학교수업 외에 경제공부에 할애하는지를 다시 질문하였다. 다음 <표 2-6>은 이 질문에 대한 결과이다. 심화과정 경제를 공부하면서 학생들이 추가 학습에 할애하였다고 응답한 시간은 0시간에서 14시간까지 그 범위가 크고 평균 시간은 2.36시간이었으며, 응답 비중이 큰 학습 시간은 2시간 이하, 3시간 이하, 1시간 이하, 0시간 순이었다. 학년별, 학교별 평균 공부 시간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sup>12)</sup>

〈표 2-5〉 심화과정 수강 이유

구 분	학교별		지역별		합계
	인문	특목	대도시	중소도시	
① 흥미있고 좋아서	512	196	252	456	708
	39.5%	45.0%	43.9%	39.3%	40.9%
② 대학진학에 필요해서	325	104	147	282	429
	25.1%	23.9%	25.6%	24.3%	24.8%
③ 선택할 수밖에 없어서	311	81	104	288	392
	24.0%	18.6%	18.1%	24.8%	22.6%
④ 주위의 권유로	45	36	34	47	81
	3.5%	8.3%	5.9%	4.1%	4.7%
④ 점수 얻기가 용이해서	104	19	37	86	123
	8.0%	4.4%	6.4%	7.4%	7.1%
<b>합 계</b>	<b>1,297</b>	<b>436</b>	<b>574</b>	<b>1,159</b>	<b>1,733</b>

- 주: 1) 각 숫자 밑의 백분율(%)는 인문계, 대도시 고등학교 등 소분류에 대한 항목별 응답 비율을 나타낸다.  
 2) 질문에 대한 응답은 3개까지 복수 응답을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에 학교별, 지역별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검정은 실시하지 않았다.

〈표 2-6〉 심화과정 경제 공부에 할애한 시간

학습 시간	학년별				학교별				합 계	
	2		3		인 문		특 목			
0 시간	29	8.5%	55	8.3%	67	8.7%	17	7.5%	84	8.4%
1시간 이하	71	20.9%	126	19.1%	161	20.9%	36	15.9%	197	19.7%
2시간 이하	87	25.6%	194	29.4%	218	28.2%	63	27.8%	281	28.1%
3시간 이하	67	19.7%	141	21.4%	154	19.9%	54	23.8%	208	20.8%
4시간 이하	57	16.8%	89	13.5%	114	14.8%	32	14.1%	146	14.6%
5시간 이하	13	3.8%	32	4.9%	35	4.5%	10	4.4%	45	4.5%
5시간 초과	16	4.7%	22	3.3%	23	3.0%	15	6.6%	38	3.8%
<b>합 계</b>	<b>340</b>	<b>100%</b>	<b>659</b>	<b>100%</b>	<b>772</b>	<b>100%</b>	<b>227</b>	<b>100%</b>	<b>999</b>	<b>100%</b>
평 균	2.38		2.35		2.31		2.54		2.36	

- 주: 1) 각 숫자 우측의 백분율(%)는 1학년, 2학년 또는 인문계 고등학교 등 소분류 및 시간별 전체 응답비율을 나타낸다.  
 2) 1학년의 경우는 심화과정 경제 선택과 관련이 없어서 제외되었으며 실업계 고등학교의 경우도 그 수가 적어서 제외하였다.  
 3) 자료의 구간 구분은 <표 2-3>의 경우처럼 7단계로 단순화하였다.

12) 학년 간 평균 공부시간의 차이에 대한 결과는  $z=0.31$ ,  $\alpha=0.757$ 이었으며, 인문고와 특목고 사이에는  $z=1.53$ ,  $\alpha=0.127$ 이었다.

심화과정 경계를 배우는 동안 교과서 이외의 학습자료 활용 빈도는 어떠한가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에 대한 응답은 다음 <표 2-7>과 같은데 전체적으로는 전혀 교과서 이외의 학습자료를 활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24.0%를 나타냈으며 1~4회의 빈도가 49.0%, 5~9회와 10회 이상이 각각 12.0%와 15.0%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도시 고등학교와 중소도시 고등학교 간에는 물론 인문고와 특목고 간에 학습자료 활용 빈도에 대한 이러한 분포는 모두 상호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sup>13)</sup> 특히 특목고의 경우 학습자료 활용 빈도가 인문고에 비해 높게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7> 심화과정 경제수업 중 학습자료 활용 빈도

구 분	학교별		지역별		합계
	인문	특목	대도시	중소도시	
① 전혀 활용 안함	217	26	85	158	243
	27.7%	11.2%	28.1%	22.3%	24.0%
② 1~4회	375	123	156	342	498
	48.0%	52.8%	51.0%	48.2%	49.0%
③ 5~9회	85	37	36	86	122
	10.9%	15.9%	11.8%	12.1%	12.0%
④ 10회 이상	105	47	28	124	152
	13.4%	20.2%	9.2%	17.5%	15.0%
합 계	782	233	306	710	1,015

주: 1) 각 숫자 밑의 백분율(%)는 인문계, 대도시 고등학교 등 소분류에 대한 항목별 응답 비율을 나타낸다.

## 2-3 학습 환경 및 기타

학생들의 경제수업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몇몇 항목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그 첫 번째 질문은 향후 수학능력 시험에서 경제과목을 선택할 예정인가였으며 이에 대한 응답의 결과는 다음 <표 2-8>과 같다. 아직 결정하지 못한 학생들의 경우는 앞으로 수학능력 시험에서 경제를 선택할 수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이를 제외한 두 경우에 대한 경향을 지역별로, 그리고 실업고를 제외한 인문고와 특목고 간의 차이를 검정한 결과 학교별, 지역별 모두 선택과 비선택 관련 경향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sup>14)</sup>

13) 인문고와 특목고 간의 자료활용 경향에 대한 결과는  $\chi^2(3) = 30.76$ 로서  $\alpha = 0.000$ 이었으며,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경우는  $\chi^2(3) = 13.09$ ,  $\alpha = 0.004$ 였다.

14) 인문고와 특목고 간의 수능선택 경향에 대한 결과는  $\chi^2(1) = 21.98$ 로서  $\alpha = 0.000$ 이었으며,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경우는  $\chi^2(1) = 34.23$ ,  $\alpha = 0.000$ 이었다.

본인의 학비 마련이나 가정생활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부업을 하고 있는지, 부업을 하고 있다면 일주일 당 평균 얼마나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지를 물었다. 그 결과는 <표 2-9>와 <표 2-10>에서 보는 바와 같으며 전체 응답이 매우 적어 아직은 고등학생들 사이에 부업이 보편화되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표 2-8> 향후 수능에서 경제 선택 여부

구 분	학교별			지역별		합계
	인문	특목	실업	대도시	중소도시	
① 그렇다	833	253	10	412	684	1,096
	70.4%	85.5%	14.7%	63.3%	76.2%	70.8%
② 아니다	176	16	41	136	97	233
	14.9%	5.4%	60.6%	20.9%	10.8%	15.1%
③ 미결정	175	27	17	103	116	219
	14.8%	9.1%	25.0%	15.8%	12.9%	14.1%
<b>합 계</b>	<b>1,184</b>	<b>296</b>	<b>68</b>	<b>651</b>	<b>897</b>	<b>1,548</b>

주: 1) 각 숫자 밑의 백분율(%)는 인문계, 대도시 고등학교 등 소분류에 대한 항목별 응답 비율을 나타낸다.

<표 2-9> 부업 여부

구 분	학생수	%
① 부업하고 있음	25	1.6%
② 부업 안함	1,514	98.4%
<b>합 계</b>	<b>1,539</b>	<b>100%</b>

<표 2-10> 주당 부업시간

구 분	학생수	%
1시간	1	6.3%
2시간	4	25.0%
3시간	1	6.3%
4시간	1	6.3%
5시간	2	12.5%
6시간	1	6.3%
6시간 초과	6	37.5%
<b>합 계</b>	<b>16</b>	<b>100%</b>

주: 1) 부업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26명 중 9명의 학생들은 구체적인 부업 시간을 표시하지 않았다.  
2) 부업에 대한 응답 수가 매우 적어 이후 분석에는 활용되지 않는다.

부모님의 직업에 대한 질문의 응답 결과는 다음 <표 2-11>과 같다. 아버지의 직업에 대해 보면 사무·기술직과 자영업이 비중이 컸으며 어머니의 직업은 절반 이상인 주부를 제외하면 자영업, 사무·기술직, 판매·서비스업 순으로 그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1> 부모님 직업

구 분	학교별			지역별		합계
	인문	특목	실업	대도시	중소도시	
① 농업/수산업/축산업	42(3.6)	3(1.0)	1(1.9)	2(0.3)	44(5.0)	46(3.1)
	19(1.6)	2(0.7)	0(0)	0(0)	21(2.4)	21(1.4)
② 자영업(종업원 9인 이하)	331(28.7)	37(12.7)	18(33.3)	160(25.6)	226(25.9)	386(25.8)
	171(14.7)	257(8.7)%	7(10.8)	76(12.0)	127(14.4)	203(13.4)
③ 판매/서비스직	69(6.0)	8(2.7)	3(5.6)	32(5.1)	48(5.5)	80(5.3)
	124(10.7)	10(3.5)	13(20.0)	57(9.0)	90(10.2)	147(9.7)
④ 기능/숙련공	83(7.2)	5(1.7)	9(16.7)	45(7.2)	52(6.0)	97(6.5)
	16(1.4)	1(0.3)	2(3.1)	9(1.4)	10(1.1)	19(1.3)
⑤ 일반작업직	49(4.3)	4(1.4)	12(22.2)	28(4.5)	37(4.2)	65(4.3)
	27(2.3)	1(0.3)	5(7.7)	13(2.0)	20(2.3)	33(2.2)
⑥ 사무/기술직	335(29.1)	108(37.1)	7(13.0)	172(27.6)	278(31.8)	450(30.1)
	124(10.7)	32(11.1)	7(10.8)	71(11.2)	92(10.4)	163(10.8)
⑦ 경영/관리직(5급이상)	122(10.6)	52(17.9)	0(0)	92(14.7)	82(9.4)	174(11.6)
	13(1.1)	5(1.7)	2(3.1)	12(1.9)	8(0.9)	20(1.3)
⑧ 전문/자유직	96(8.3)	74(25.4)	2(3.7)	84(13.5)	88(10.1)	172(11.5)
	35(3.0)	24(8.3)	0(0)	27(4.3)	32(3.6)	59(3.9)
⑨ 주 부	0(0)	0(0)	0(0)	0(0)	0(0)	0(0)
	627(53.9)	183(63.5)	29(44.6)	365(57.5)	474(53.8)	839(55.3)
⑩ 학 생	0(0)	0(0)	0(0)	0(0)	0(0)	0(0)
	2(0.2)	1(0.3)	0(0)	1(0.2)	2(0.2)	3(0.2)
⑪ 무 직	12(1.0)	0(0)	2(3.7)	5(0.8)	9(1.0)	14(0.9)
	5(0.4)	4(1.4)	0(0)	1(0.2)	2(0.2)	3(0.2)
⑫ 기 타	13(1.1)	0(0)	0(0)	4(0.6)	9(1.0)	13(0.9)
	0(0)	0(0)	0(0)	0(0)	0(0)	0(0)
합 계	1,152	291	54	624	873	1,497
	1,163	288	65	635	881	1,516

주: 1) 각 숫자 옆의 ( )는 인문계, 대도시 고등학교 등 소분류에 대한 항목별 응답 비율을 나타내며 각 항목 당 상단부 값은 부의 직업, 하단부는 모의 직업을 나타낸다.

<표 2-12>는 학생 가정의 총 월 가구소득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소득규모에 대한 계급구간을 50만원 또는 100만원 간격으로 하지 않은 것은 학생들이 가구소득에 대해 덜 혼동을 주 기 위함이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300~499만원에 응답한 비율이 40.0%였으며 100~299만원에 응답한 비율이 뒤를 이어 36.4%, 500만원 이상이 19.3%, 그리고 100만원 미만은 4.4%로 나타났다. 학교별, 지역별 고등학교 학생들의 가구 소득규모 분포 간에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본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sup>15)</sup>

〈표 2-12〉 가구소득

구 분	학교별			지역별		합계
	인문	특목	실업	대도시	중소도시	
① 100만원 미만	45	1	20	32	34	66
	3.9%	0.3%	29.4%	5.0%	3.9%	4.4%
② 100~299만원	467	38	41	211	335	546
	40.6%	13.1%	60.3%	33.3%	38.4%	36.3%
③ 300~499만원	469	128	6	245	358	603
	40.8%	44.3%	8.8%	38.6%	41.1%	40.0%
④ 500만원 이상	168	122	1	146	145	291
	14.6%	42.2%	1.5%	23.0%	16.6%	19.3%
합 계	1,149	289	68	634	872	1,506

즉, 대도시의 경우 중소도시에 비해 100만원 미만과 500만원 이상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인문고에 비해 특목고의 경우는 더 높은 가구소득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부모님의 학력에 대해 질문하였다. 선택항은 중학교 졸업 미만에서부터 대학원 졸업 이상 등 5가지로 하였으며 응답 결과는 다음 <표 2-13>과 같다. 아버지의 학력의 경우 대학졸업 이상이 38.1%였으며 고등학교 졸업 이상은 37.7%, 대학원 졸업 이상이 19.1%를 보였다. 지역별로 보면 대도시의 경우가 중소도시에 비해 학력이 높은 경향이 있으며, 이는 학교별로 볼 때 특목고가 일반 인문고에 비해 아버지의 학력이 대학 이상에 더 많은 분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up>16)</sup> 어머니의 학력에 대한 응답 결과,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 52.2%, 대학교 졸업 이상이 32.8%였으며 아버지의 학력에 대한 응답 경우와 같이 특목고가 일반고에 비해, 대도시가 중소도시에 비해 학력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sup>17)</sup>

15) 인문고와 특목고 간의 경우  $\chi^2(3)=147.44$ ,  $\alpha=0.000$ 이었으며,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경우  $\chi^2(3)=12.26$ ,  $\alpha=0.007$ 이었다.

16) 인문고와 특목고 간의 경우  $\chi^2(4)=161.03$ ,  $\alpha=0.000$ 이었으며,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경우  $\chi^2(4)=12.44$ ,  $\alpha=0.014$ 이었다.

마지막으로 제시한 질문은 부모, 삼촌, 형제자매를 중심으로 하는 가족 중에서 경제학을 전공하였거나 전공 중에 있는 분이 있는가 였다. 이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 <표 2-14>와 같다. 전체적으로는 가족 중 경제학 전공한 사람이 있다는 응답의 비중은 14.8%였으며, 학교별로는 특목고의 경우가 24.0%, 인문고 12.7%, 실업고 10.3%를 보였으며, 지역별로는 대도시의 경우가 16.3%, 중소도시 13.9%를 보였다. 지역별로 예, 아니오의 비율이 유의한가 살펴본 결과, 차이가 없었지만 학교별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up>18)</sup>

<표 2-13> 부모 학력

구 분	학교별			지역별		합계
	인문	특목	실업	대도시	중소도시	
① 대학원 졸업 이상	169(14.5)	120(41.0)	0(0)	135(21.2)	154(17.5)	289(19.1)
	46(4.0)	41(13.9)	0(0)	41(6.4)	46(5.2)	87(5.7)
② 대학졸업 이상	434(37.3)	137(46.8)	7(11.9)	261(40.9)	317(36.1)	578(38.1)
	324(27.8)	173(58.6)	3(4.5)	243(37.9)	257(29.0)	500(32.8)
③ 고등학교 졸업 이상	492(42.3)	34(11.6)	45(76.3)	217(34.0)	354(40.3)	571(37.7)
	676(58.1)	79(26.8)	42(62.7)	305(47.6)	492(55.6)	797(52.2)
④ 중학교 졸업 이상	46(4.0)	2(0.7)	6(10.2)	18(2.8)	36(4.1)	54(3.6)
	86(7.4)	2(0.7)	17(25.4)	41(6.4)	64(7.2)	105(6.9)
⑤ 중학교 졸업 미만	23(2.0)	0(0)	1(1.7)	7(1.1)	17(1.9)	24(1.6)
	32(2.7)	0(0)	5(7.5)	11(1.7)	26(2.9)	37(2.4)
합 계	<b>1,164</b>	<b>293</b>	<b>59</b>	<b>638</b>	<b>878</b>	<b>1,516</b>
	<b>1,164</b>	<b>295</b>	<b>67</b>	<b>641</b>	<b>885</b>	<b>1,526</b>

주: 1) 각 숫자 옆의 ( )는 인문계, 대도시 고등학교 등 소분류에 대한 항목별 응답 비율을 나타내며 각 항목 당 상단부 값은 부의 학력, 하단부는 모의 학력을 나타낸다.

17) 인문고와 특목고 간의 경우  $\chi^2(4)=176.94$ ,  $\alpha=0.000$ 이었으며,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경우  $\chi^2(4)=16.94$ ,  $\alpha=0.002$ 이었다.

18) 인문고와 특목고 및 실업고 간의 예, 아니오에 대한 비율의 검정 결과,  $\chi^2(2)=26.26$ ,  $\alpha=0.000$ 이었으며,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경우  $\chi^2(1)=1.56$ ,  $\alpha=0.211$ 이었다.

〈표 2-14〉 가족 중 경제학 전공자 유무

구 분	학교별			지역별		합계
	인문	특목	실업	대도시	중소도시	
① 예	149	71	7	104	123	227
	12.7%	24.0%	10.3%	16.0%	13.9%	14.8%
② 아니오	1,023	225	61	544	765	1,309
	87.3%	76.0%	89.7%	84.0%	86.1%	85.2%
합 계	1,172	296	68	648	888	1,536

## 2-4 수학시험

수학시험은 간단한 산수 수준의 7문제와 1차 함수에 대한 5문제 등 모두 12문제를 5분 동안 풀도록 하였다. 이 중 산수 수준의 7문항은 대학생들의 경제학 이해 정도에 수학성적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분석한 논문에서 활용한 문제 중 일부를 번역한 것이며,<sup>19)</sup> 1차 함수에 대한 5문제는 미국 경제교육위원회가 고등학생들의 경제학 이해에 도움을 주기위해 제작한 수학 참고자료를 토대로 다소 변형하여 제작하였다.<sup>20)</sup> 12문항 전체와 1차 함수에 대한 5문항 관련 정답률에 대한 결과는 다음 <표 2-15>와 같다. <표 2-15>에 의하면 수학문제에 대한 정답률이 12문항 전체에 관해 볼 때, 학교별로는 특목고 학생들의 경우가 11.34점으로 가장 높았고 인문고, 실업고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 볼 경우에는 중소도시가 대도시 보다 더 높았다.<sup>21)</sup> 1차함수에 관한 수학문제에 있어서도 대도시 학생들에 비해 중소도시

〈표 2-15〉 수학문제에 대한 정답 평균

구 분	학교별			지역별		합계
	인문	특목	실업	대도시	중소도시	
12문항 평균	9.80	11.34	7.84	9.82	10.15	10.01
	(3.43)	(0.78)	(3.60)	(4.42)	(2.82)	(3.51)
5문항 평균	3.22	4.52	1.87	3.31	3.49	3.41
	(1.97)	(0.54)	(1.37)	(2.25)	(1.89)	(2.03)

주: 1) 평균 값 밑의 ( ) 안의 값은 각각의 분산을 나타낸다.

2) 5문항은 1차함수에 대한 문제로서 나머지 7문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렵다.

19) Ballard, Charles L. and Johnson, M. F., "Basic Math Skills and Performance in an Introductory Economics Class," *Journal of Economic Education*, Winter 2004, 35, pp. 3-23.

20) National Council on Economic Education, *Mathematics and Economics: Connections for Life*, 2001, pp. 1-17 참조.

21) 특목고의 평균 점수 11.34가 인문고의 평균 9.80보다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검정 결과는  $z=20.77$ ,  $\alpha=0.000$ 이었으며, 인문고와 실업고 간에는  $z=8.31$ ,  $\alpha=0.000$ , 특목고와 실업고 간에는  $z=14.87$ ,  $\alpha=0.000$ 이었다.

의 학생들이 좀 더 높은 평균을 보이고 있으며,<sup>22)</sup> 학교별로는 12문항이나 5문항 모두 특목고, 인문고, 실업고 순으로 평균 점수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5 교사 설문조사 결과

교사들에게 제일 먼저 제시한 질문은 전공에 대한 것이었으며 그 응답은 다음 <표 2-16>과 같았다. <표 2-16>에서 보듯이 응답한 교사들의 53.8%가 사범대학 일반사회를 전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대학의 경제학 전공자는 13.5%를 보였다. 사범대학 기타 전공의 경우 구체적으로 전공을 표시한 경우는 3건에 불과했는데 그 내용은 각각 교육학 2, 체육교육이 1 건이었다. 일반대학 기타의 경우 구체적으로 전공을 밝힌 건수는 11건이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사회학 5, 법학 3, 행정학 2, 지역개발 1 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16> 경제 담당 교사의 전공

구 분	학교별			지역별		합계
	인문	특목	실업	대도시	중소도시	
① 사범대학 일반사회	17	11	0	16	12	28
	47.2%	73.3%	0%	59.3%	48.0%	53.8%
② 사범대학 기타	4	0	0	3	1	4
	11.1%	0%	0%	11.1%	4.0%	7.7%
③ 일반대학 경제학	6	1	0	4	3	7
	16.7%	6.7%	0%	14.8%	12.0%	13.5%
④ 일반대학 기타	9	3	1	4	9	13
	25.0%	20.0%	100%	14.8%	36.0%	25.0%
합 계	36	15	1	27	25	52

주: 1) 각 숫자는 해당 전공에 해당하는 교사들의 수를 의미하며, 이들 숫자 밑의 백분율(%)은 인문계, 대도시 고등학교 등 소분류에 대한 항목별 응답 비율을 나타낸다.

2) 교사 설문 총응답자 수는 52명이다.

3) 0은 해당 응답이 없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제시한 질문은 교사경력이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심화과정 경제과목 및 일반사회 중의 경제 단원을 가르친 경력은 어느 정도인가였다. <표 2-17>은 응답 결과를 평균치로 나타낸 것이다. <표 2-17>에서 보듯이 교사경력은 전체적으로 15.2년으로 나타났으며 인문고와 특목고 간, 그리고 대도시 지역과 중소도시 지역 간 교사들의 교사경력은 차이가 없었다.<sup>23)</sup> 경제과목을 가르친 경력이 얼마나 되는가에

22)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의 평균 점수 간의 차이는  $z=3.37$ ,  $\alpha=0.000$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23) 평균 교사 경력에 대한 차이를 보면, 인문고와 특목고 간의 경우  $z=1.15$ ,  $\alpha=0.250$ , 대도시의 중소도시 간의 경우  $z=-0.32$ ,  $\alpha=0.749$ 이었다.

〈표 2-17〉 경제 담당 교사의 평균경력

구 분	학교별			지역별		전체
	인문	특목	실업	대도시	중소도시	
교사 경력	15.9	13.0	26.4	14.9	15.6	15.2
경제과목 경력	5.4	2.5	0	4.3	4.8	4.5
일반사회 경제 경력	9.5	9.3	26	9.6	10.0	9.8

주: 1) 단위는 년수이다.

2) <표 2-16>에서 보듯이 실업고의 경우 응답 교사는 단 1명에 불과하여 비교에서는 제외했다.

대한 경우, 전체적으로는 평균 4.5년을 보였으며 지역별 교사들의 경력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인문고와 특목고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sup>24)</sup> 일반사회 중 경제 단원을 가르친 경력에 대한 경우 전체 평균은 9.8년이었지만 학교별, 지역별 간에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sup>25)</sup>

다음으로 제시한 질문은 최근 경제수업에서 교과서만을 사용하는지 아니면 신문 기사나 동영상 등 교과서 외의 학습자료를 활용하는지였다. 이에 대한 응답은 다음 <표 2-18>과 같았다. <표 2-18>은 응답 교사 51명 중 15.7%에 해당하는 8명만이 경제수업 시간에 교과서만을 사용하고 있고, 대부분의 교사들은 학습자료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자료를 활용하는 교사들의 비율은 지역별, 학교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sup>26)</sup>

〈표 2-18〉 경제수업에서 학습자료 활용

구 분	학교별		지역별		합계
	인문	특목	대도시	중소도시	
① 교과서만 활용	6	2	4	4	8
	16.7%	13.3%	15.4%	16.0%	15.7%
② 학습자료도 활용	30	13	22	21	43
	83.3%	86.7%	84.6%	84.0%	84.3%
합 계	36	15	26	25	51

주: 1) 각 숫자 밑의 백분율(%)는 인문계, 대도시 고등학교 등 소분류에 대한 항목별 응답 비율을 나타낸다.

이어서 고등학생들에게 경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교내 수업 외에 특

24) 경제과목을 담당한 평균 경력에 대한 차이를 보면,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의 경우  $z=-0.39$ ,  $\alpha=0.694$ 였으나 인문고와 특목고 간의 경우  $z=2.24$ ,  $\alpha=0.025$ 이었다.

25) 일반사회 과목에서 경제부분을 담당한 평균 경력에 대한 차이를 보면,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의 경우  $z=-0.19$ ,  $\alpha=0.848$ 였으나 인문고와 특목고 간의 경우  $z=0.12$ ,  $\alpha=0.903$ 이었다.

26) 지역별로는  $z=0.06$ ,  $\alpha=0.953$ , 학교별로는  $z=-0.30$ ,  $\alpha=0.761$ 이었다.

별활동을 하도록 하느냐 하는 질문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응답은 다음 <표 2-19>와 같았다. <표 2-19>는 경제를 담당하는 교사들의 55.8%가 경제와 관련한 특별활동을 실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경우는 대체로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에는 차이가 없었지만 인문고와 특목고 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sup>27)</sup> 구체적으로 어떠한 특별활동을 실시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각종 경제 관련 경시대회 준비하기, 신문기사 읽고 정리하기, 경제체험의 일환으로 창업 및 모의 투자해보기, 파워 포인트 제작해 보기 등이 제시되었다.

<표 2-19> 경제 관련 특별활동 실시

구 분	학교별			지역별		합계
	인문	특목	실업	대도시	중소도시	
① 그렇다	24	5	0	14	15	29
	67.7%	33.3%	0%	51.9%	60.0%	55.8%
② 그렇지 않다	12	10	1	13	10	23
	33.3%	67.7%	100.0%	48.1%	40.0%	44.2%
합 계	36	15	1	27	25	52

주: 1) 각 숫자 밑의 백분율(%)는 인문계, 대도시 고등학교 등 소분류에 대한 항목별 응답 비율을 나타낸다.

마지막 질문은 일반사회의 경제 단원을 수업할 때이건 아니면 심회과정 경제를 수업할 때이건, 학습지를 포함하여 파워포인트, 동영상 등의 학습자료를 얼마나 만들어 사용하는가였다. 이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 <표 2-20>과 같았다. <표 2-20>에서 보듯이 전체적으로는 매우 자주 학습자료를 제작하여 수업시간에 활용하는 경우는 9명으로 18.4%에 그쳤으며 가끔 제작한다는 응답이 38명으로 77.6%를 나타냈다. ① 매우 자주 제작한다는 경우와 ② 가끔 제작한다는 응답을 묶어 제작한다고 하고 전체에 대해 제작하는 경우의 비율을 살펴본 결과 지역별, 학교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sup>28)</sup>

27)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경우  $\chi^2(1)=0.83$ ,  $\alpha=0.363$ 이었으며 인문고와 특목고의 경우  $\chi^2(1)=5.19$ ,  $\alpha=0.023$ 이었다.

28) 세 경우를 모두 고려하여 소분류 항목에 대한 분포 상의 차이를 살펴 보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지만 관찰치는 물론 기대치가 매우 적어  $\chi^2$  검정을 실시할 경우 신뢰도가 떨어진다. 제작하는 경우의 비율이 같다고 볼 수 있는지를 검정한 결과는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경우  $z=-0.04$ ,  $\alpha=0.972$ 이었으며 인문고와 특목고의 경우  $z=-1.32$ ,  $\alpha=0.187$ 이었다.

〈표 2-20〉 학습자료 제작

구 분	학교별		지역별		합계
	인문	특목	대도시	중소도시	
① 매우 자주 제작	7	2	3	6	9
	20.0%	14.3%	12.5%	24.0%	18.4%
② 가끔 제작	26	12	20	18	38
	74.3%	85.7%	83.3%	72.0%	77.6%
③ 전혀 제작 없음	2	0	1	1	2
	5.7%	0%	4.2%	4.0%	4.1%
합 계	35	14	24	25	49

주: 1) 각 숫자 밑의 백분율(%)는 인문계, 대도시 고등학교 등 소분류에 대한 항목별 응답 비율을 나타낸다.

### 제3장 경제수업 현황

2장에서 학생 및 교사들에게 제시한 설문에 대한 응답들을 전체적으로, 학교별, 지역별로 살펴보았다. 우리의 관심은 고등학교에서의 경제수업은 어떤 모습을 보일까, 그리고 인문고나 특목고 또는 대도시 고등학교와 중소도시 고등학교 등 집단간 어떠한 상대적인 특성을 보이는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므로 응답 결과를 토대로 수업 모양을 구축해 보고자 한다. 경제수업의 모습을 구현하는 작업은 각 설문 항목들에 대한 결과를 적절히 결합하는 것이지만 조사 항목 24개를 모두 고려하기 보다는 학교별, 지역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항목들을 중심으로 경제수업의 모습을 그려보기로 한다. 다음 <표 3-1>은 앞 장에서 나타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항목들을 다시 정리한 것이다.

〈표 3-1〉 학교별, 지역별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항목들

구성 분야	설문조사 항목	설문 대상	유의성 여부	
			학교별	지역별
학습동기	향후 수능에서 경제 선택 여부	학생	○	○
개인능력	수학문제에 대한 정답 평균		○	○
가정환경	가구소득		○	○
	부모학력(부)		○	○
	부모학력(모)		○	○
	가족 중 경제학 전공		○	×
학교수업	일반사회 경제 학습자료 활용 빈도		○	○
	심화과정 경제 학습자료 활용 빈도		○	○
	경제과목 경력		교사	○

주: 1) 유의성 여부에서 ○는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는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나타낸다.

### 3-1 학교별 경제수업

인문고, 특목고, 실업고 등 학교별 경제수업의 모습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① 향후 수학능력 시험에서 경제과목 선택 여부, ② 수학문제에 대한 정답 평균, ③ 가구 소득, ④ 부모학력, ⑤ 가족 중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이 있는지 여부, ⑥ 일반사회 및 심화과정 경제수업 중 학습자료의 활용 빈도, ⑦ 경제과목 경력(교사) 등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질문 항목이다.

하지만 이 결과를 그대로 이용하여 학교별 경제수업 모습을 구현해 보기에는 불편함이 있다. 이들 자료를 동일한 공간에 나타내기에는 단위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수학문제의 경우 최고 12점까지 실제 점수로 나타내어져 있지만, 향후 수학능력 시험에서 경제를 선택할 것인가의 여부와 가족 중 경제학 전공자가 있는지 여부는 그렇다, 아니다와 같은 응답으로 되어 있고, 부모의 학력 역시 대학원 졸업 이상, 대학 졸업 이상 ... 등으로 선택하도록 되어 있으며, 학습자료의 활용 빈도 역시 전혀 활용하지 않는다에서 10회 이상 등 몇 개의 선택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 아니다 응답의 경우, 아니대에 0을, 그렇다에 1을 주고, 학력의 경우에서처럼 대학원 졸업 이상, 대학 졸업 이상 등 여러 선택 항목으로 되어 있는 경우나 수학문제의 경우를 최고치에 1, 최저치에 0을 주는 방식으로 모든 질문들을 0과 1사이의 값으로 전환하기로 한다.<sup>29)</sup>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작성한 학교별 경제수업은 <표 3-2> 및 <그림 3-1>과 같다.

<표 3-2>와 <그림 3-1>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교사의 경제과목 담당 경력을 제외하고는 경제수업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에서 특목고가 일반고나 실업고 상대적으로 보다 높은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가정환경이나 개인의 능력에 관한 결과를 제외하더라도 경제과목에 대한 흥미나 향후 수학능력 시험에서 경제를 선택하고자 하는 비율, 그리고 특히 경제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더하기에 필요한 학습자료의 활용에 있어서도 특목고의 경우가 더 높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각 요소들의 평균 값으로 나타난 평균수업과 비교해 볼 때, 특목고의 경제수업이 평균수업을 상회하고 인문고와 실업고의 경우는 평균수업보다 전체적으로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교사들의 심화과정 경제에 대한 경력은 반대로 특목고의 경우가 인문고에 비해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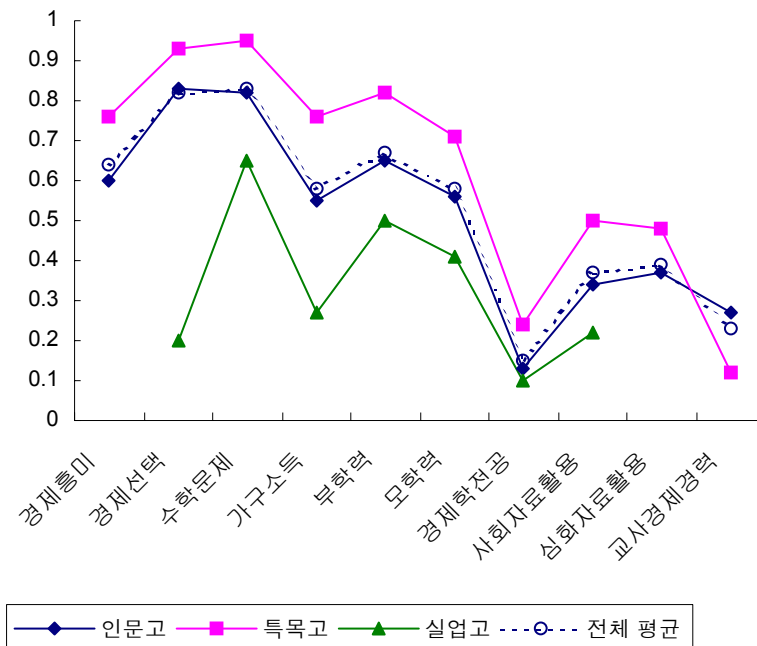
29) 따라서 부모의 학력에 대한 질문의 경우, 대학원 졸업 이상의 학력에 4, 대학 졸업 이상에 3, 고등학교 졸업 이상에 2, 중학교 졸업 이상 1, 그리고 중학교 졸업 이하에 0의 값을 준 다음 각 선택 항에 응답한 학생들의 수를 가중치로 사용하여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을 0과 1 사이의 어떤 값으로 전환한다.

〈표 3-2〉 학교별 경제수업

설문조사 항목	인문고	특목고	실업고	전체 평균
심화과정 경제의 흥미 여부	0.60	0.76	-	0.64
향후 수능에서 경제 선택 여부	0.83	0.93	0.20	0.82
수학문제에 대한 정답 평균	0.82	0.95	0.65	0.83
가구소득	0.55	0.76	0.27	0.58
부모학력(부)	0.65	0.82	0.50	0.67
부모학력(모)	0.56	0.71	0.41	0.58
가족 중 경제학 전공	0.13	0.24	0.10	0.15
일반사회 경제 학습자료 활용 빈도	0.34	0.50	0.22	0.37
심화과정 경제 학습자료 활용 빈도	0.37	0.48	-	0.39
경제과목 경력(교사)	0.27	0.12	-	0.23

- 주: 1) 학교별로 보았을 때 유의성을 판단하지는 않았지만 학생들이 경제과목에 흥미를 가지고 임하는 가는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흥미를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수를 인문고, 특목고별로 나누어 상대적인 비율을 구하였다.
- 2) 그렇다, 아니다 또는 다수 선택항목으로 되어 있지 않고 절대값으로 응답이 이루어지는 교사의 경제과목 담당 경력, 수학문제의 성적 등은 최저값과 최고값 사이의 길이를 해당 값에 역수로 곱해 0과 1사이의 값으로 전환한 다음 응답자 수를 가중치로 사용하여 최종적으로 질문에 대한 값을 구하였다.
- 3) 실업고의 경우 심화과정 경제에 대한 응답이 없으며 교사의 경력 응답도 없다.
- 4) 교사의 경제과목(심화과정) 경력은 51분의 교사들이 응답한 경력을 최고치 1, 최저치 0으로 하여 가중 평균한 값을 학교별로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그림 3-1〉 학교별 경제수업



### 3-2 지역별 경제수업

학교별 경제수업의 경우와 동일한 방식으로 대도시와 중소도시 고등학교들 간의 경제수업에 대해 정리한 결과가 <표 3-3>과 <그림 3-2>이다. 이들 자료에 의하면 경제에 대한 흥미와 가정환경 관련 항목에 있어서 대도시 고등학교의 경제수업이 높은 값을 보이고 있으나 향후 수학능력 시험에서 경제를 선택하겠다는 의향과 학습자료의 활용 빈도 및 심화과정 경제에 있어서의 교사 경력은 중소도시의 경우가 더 높은 값을 보이고 있다. 가정환경이나 개인의 능력을 제외한다면 대도시의 경우가 경제에 대한 흥미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을 뿐, 또 다른 동기 요소인 수능선택이나 공급 측면의 경제수업 요소들, 즉 학습자료의 활용과 교사의 경력에 있어서 중소도시가 더 높은 값을 보이고 있다.

### 3-3 개별 학교로 본 경제수업: 수요 요소와 공급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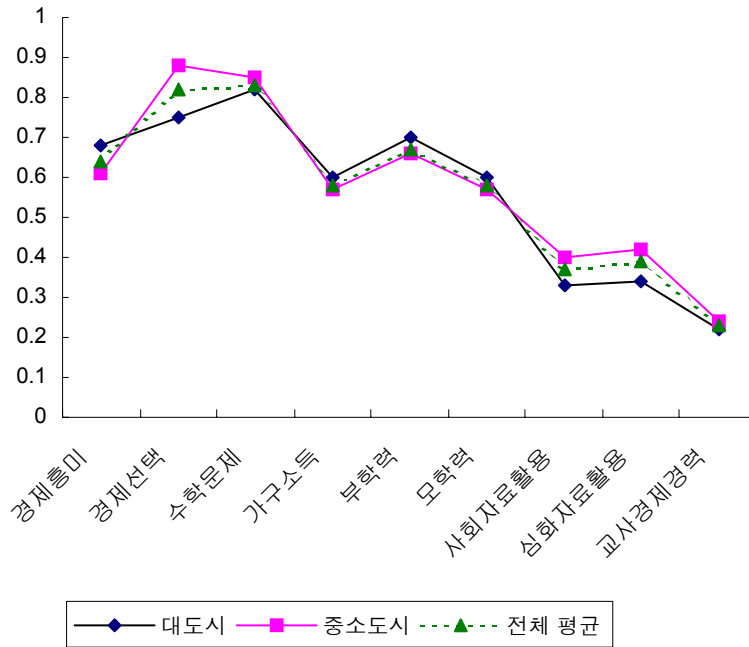
<표 1-1>에서 보았듯이 조사문항들은 크게 경제에 대한 학습동기와, 수학능력, 가정환경, 그리고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학교수업 등 4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의 관심은 학생들이 경제과목에 관심과 흥미를 갖는 정도는 어떠한가 그에 부응하여 학교수업은 이들의 욕구를 얼마나 채워주고 있는가이다. 즉, 학습동기를 경제수업에 대한 수요 측면이라고 본다면 학교수업 항목들은 공급 측면이라고 볼 수 있으며 개별 학교에서 수요 요소들과 공급 요소들 간에는 어떠한 경향을 보이는가 하는

<표 3-3> 지역별 경제수업

설문조사 항목	대도시	중소도시	전체 평균
심화과정 경제의 흥미 여부	0.68	0.61	0.64
향후 수능에서 경제 선택 여부	0.75	0.88	0.82
수학문제에 대한 정답 평균	0.82	0.85	0.83
가구소득	0.60	0.57	0.58
부모학력(부)	0.70	0.66	0.67
부모학력(모)	0.60	0.57	0.58
일반사회 경제 학습자료 활용 빈도	0.33	0.40	0.37
심화과정 경제 학습자료 활용 빈도	0.34	0.42	0.39
경제과목 경력	0.22	0.24	0.23

주: 1) 수학문제와 가구소득의 경우 시·도 단위가 아닌 군단위에 소재한 강원2 고등학교가 중소도시의 값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 강원2 고등학교를 제외하고 이들 질문 항목에 대한 값을 구하여 본 결과, 그 값이 각각 0.85에서 0.84, 0.57에서 0.55로 낮아졌으나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의 상대적인 크기를 역전시킬 만큼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았다.

<그림 3-2> 지역별 경제수업



것이다.<sup>30)</sup> 다음 <표 3-4>는 0과 1 사이의 표준화된 값으로 표현한 개별 학교들의 경제수업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나타내고 있다.

위의 <표 3-4>에 의하면 경제과목에 대한 흥미와 수학능력 시험에서 경제를 선택하고자 하는 비율이 평균을 모두 상회하는 학교의 수는 11개 교이다. 하지만 학습자료의 활용이나 특별활동이 이에 부응하여 상대적으로 평균을 모두 상회하고 있는 학교는 3번과 27번의 학교 둘 뿐이다. 나머지 9개 학교를 보면 특별활동이 평균을 상회하는 경우가 3개교, 학습자료의 활용이 상대적으로 평균을 상회하는 경우가 3개교이고 두 요소, 즉 특별활동이나 자료활용모두 평균을 하회하는 학교의 수가 3개교이다. 공급 측면을 중심으로 볼 경우에도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학교의 경제수업이 공급 측면에서 두 항목 모두 평균 이하의 수준인 학교는 5개교이지만 이중 수요 요소가 모두 평균 이하인 학교는 2개교이며 나머지 중에서 두 학교는 두 가지 수요 요소가 모두 평균 이상을 보이고 있다. 공급 측면에서 본 경제수업이 부진하다고 해서 학생들의 수요 욕구가 그에 상응하여 낮은 상태를 보인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의 학습동기의 정도에 비해 경제수업을 통해 공급되는 요소들은 비례 관계에 있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30) 물론 학생 개인의 능력도 경제과목을 선택하게 하는 수요요인으로 볼 수 있고, 교사의 전체적인 경력도 학생들의 수업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4변수만으로 논의를 단순화하여 보기로 한다.

<표 3-4> 개별 학교들의 경제수업: 수요와 공급 측면

학교번호	수요 요소		공급 요소	
	경제과목 흥미	수능 경제선택	특별활동	학습자료 활용
3	0.674(+)	0.977(+)	0.80(+)	0.540(+)
4	0.629(-)	0.750(-)	0.50(-)	0.333(-)
5	0.744(+)	1.000(+)	0.00(-)	0.448(+)
6	0.563(-)	0.900(+)	1.00(+)	0.393(=)
7	0.917(+)	0.625(-)	0.00(-)	0.143(-)
8	0.268(-)	0.980(+)	1.00(+)	0.139(-)
10	0.938(+)	0.829(+)	1.00(+)	0.222(-)
13	0.830(+)	0.962(+)	1.00(+)	0.301(-)
14	0.744(+)	0.891(+)	0.50(-)	0.276(-)
15	0.763(+)	0.935(+)	0.50(-)	0.230(-)
17	0.640(+)	0.865(+)	0.50(-)	0.647(+)
18	0.477(-)	0.927(+)	0.00(-)	0.488(+)
19	0.580(-)	0.981(+)	1.00(+)	0.667(+)
20	0.813(+)	0.610(-)	1.00(+)	0.407(+)
22	0.723(+)	0.978(+)	1.00(+)	0.341(-)
23	0.375(-)	0.878(-)	0.33(-)	0.278(-)
24	0.796(+)	1.000(+)	1.00(+)	0.207(-)
25	0.552(-)	0.918(+)	1.00(+)	0.310(-)
26	0.652(+)	0.837(+)	0.00(-)	0.572(+)
27	0.820(+)	1.000(+)	1.00(+)	0.565(+)
29	0.382(-)	0.854(+)	0.00(-)	0.542(+)
<b>평균</b>	<b>0.635</b>	<b>0.825</b>	<b>0.506</b>	<b>0.393</b>

- 주: 1) ( ) 속의 +, - 표시는 각 값이 하단에 표시되어 있는 평균에 비해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를 나타낸다. 평균은 전체 자료를 이용해 구하였으나 일부 자료가 불충분한 개별 학교들을 제외한 까닭에 평균을 중심으로 표시되는 +와 -의 개수가 정확히 반분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 2) 학습자료 활용이란 심화자료 활용, 즉 심화과정과 관련한 학습자료 활용 빈도를 의미한다.
- 3) 3장을 통해 유의한 자료로 사용되던 교사경력을 제하고 특별활동으로 대체한 것은 교사경력보다 특별활동이 학생들의 경제수업 공급 요소로 더 유의하기 때문이다. 다음 4장 참조.

<표 3-4>를 토대로 한 결과, 단위 학교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제수업은 학생들의 경제과목에 대한 수요와 수업을 통한 공급이 균형 상태에 있지 못하다는 판단은 다분히 목측에 의한 것이다. 이번에는 이를 좀 더 수요 측면의 요소들과 공급 측면의 요소들이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다음 <표 3-5>의 ① 항들은 <표 3-4>의 자료를 토대로 4 요소들 간의 단순상관계수를 나타낸 것이다. 수요 측면의 요소들은 공급 측면의 각 요소들에 대해 신뢰할 만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못하다고 할 수 있는가? 예컨대 단위 학교별로 본 경제과목에 대한 흥미와 특별활동은 상호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없는가, 또는 수학능력 시험에서 경제과목을 선택하는 학교별 정도는 특별활동이나 학습자료의 활용과 같은 요소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못한가? 이제 이 점을 살펴보도록 한다. 이 질문에 대한 통계적 해석은 각 쌍 간에 구해진 상관계수는 0일 것이다 라고 하는 통계적 귀무가설이 받아들여지느냐를 보면 될 것이다. <표 3-5>의 각 경우에 있어 귀무가설을 검정하기 위한 검정통계량 값들이 ② 항에 계산되어 있으며 귀무가설을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최종 판단이 ③ 항에 유의수준으로 나타나 있다.

<표 3-5> 수요-공급 요소들 간의 상관계수와 유의성 여부

구 분		공급 요소	
		특별 활동	학습자료 활용
수요 요소	경제과목 흥미	① $r=0.1694$	① $r=-0.1557$
		② $t(19)=0.7494$	② $t(19)=-0.6871$
		③ $p\text{-value}=0.4628$	③ $p\text{-value}=0.5003$
	수능 경제선택	① $r=0.2738$	① $r=0.1739$
		② $t(19)=1.2409$	② $t(19)=0.7698$
		③ $p\text{-value}=0.2297$	③ $p\text{-value}=0.4509$

- 주: 1)  $r$ 은 해당 수요 요소와 공급 요소 간의 단순상관계수를 나타낸다.  
 2)  $t$ 값은 귀무가설  $H_0: \rho=0$ 에 대한 검정통계량으로서 이 값의 계산은  $r\sqrt{(n-2)}/\sqrt{(1-r^2)}$ 에 의하며 ( )안의 값은 자유도이다. 여기서  $n$ 과  $\rho$ 는 각각 표본 수, 모집단의 상관계수를 의미한다.  $H_0: \rho=0$ 에 대한 검정통계량에 대해서는 계량경제학 또는 통계학 서적을 참조할 수 있다. Snedecor, George W. and Cochran, William G., Statistical Methods, The Iowa State University Press, 1967, p. 184.  
 3)  $p$ -value는 유의수준을 나타낸다. 4 경우 모두 0.05보다 높다.

<표 3-5>는 수요 요소와 공급 요소가 만들어 내는 4 가지 경우 모두에 있어서 상관계수는 모집단 상관계수가 0이라고 하는 가설을 기각하지 않는다. 즉, 수요 요소와 공급 요소간에 어느 경우도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결과를 전제로 현장에서의 경제수업을 추론해 본다면, 수학능력 시험에서 경제에 대한 문제가 경제학 지식 위주의 출제 경향이 강하다면 교과서나 문제 풀이 위주의 수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별활동이나 학습자료의 활용이 학생들로 하여금 경제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지 못할 수 있다는 반증도 될 수 있다. 설문 조사에서는 학습자료의 종류가 어떠하며 학생들에게 흥미를 유발하기에 충분한 또는 충분하지 않은 요인들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파악은 가능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좀 더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 제4장 수학능력 시험에서의 경제 선택

본 연구의 기본 취지는, 고등학교의 경제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경제와 관련한 지식 습득이나 경제이해 정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어떤 학습동기를 가지고 경제수업에 참여하는지, 이들의 가정환경이나 개인 능력은 또 어떠한지 그리고 학교 수업은 어느 정도로 주어지는지 등을 파악하고자 함이다. 하지만 이러한 질문들은 결국 이들 학생들이 수학능력 시험에서 경제과목을 선택할 것인지를 귀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향후 수학능력 시험에서 경제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학생들에게 제시한 나머지 질문들을 아우르는 일면을 지닌다는 것인데 이는 학교에서 심화과정 경제를 수강한 학생일수록<sup>31)</sup> 또는 보다 경제과목에 흥미를 느끼는 학생일수록 수학능력 시험에서 경제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제 심화과정 경제수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사 관련 항목, 가정환경, 개별 학생들의 경제과목에 대한 흥미 등에 대한 응답들을 토대로 수학능력 시험에서 경제를 선택하는 데에 이러한 요인들이 얼마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러한 요인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이러한 요인들에 대한 분석은 경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어떤 방안들을 모색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단서를 제공할 것이다.

### 4-1 경제과목 선택 요인

수학능력 시험에서 경제를 선택하는 데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에 대한 이전의 많은 연구 결과가 있어서 이러이러한 요소들이 주된 결정요소라는 보편적인 주장이 있어 왔다면, 그리고 이번 설문 조사에서 그러한 주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번 설문 조사에서는 그러한 주장들이 이번 표본 조사를 통해 얼마나 지지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주요한 분석 내용이 되겠지만 현재까지 이러한 유형의 연구 결과가 없는 까닭에 여기서는 수학능력 시험에서 경제과목을 선택하는 데에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는 요소들은 무엇일까를 찾아보기로 한다.

수학능력 시험에서 경제를 선택하겠다는 응답을 종속변수로 하고 이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문항들을 독립변수로 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31) 심화과정 경제를 수강했는가의 여부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이번 조사에 응한 표본에는 실업고 1개교와 인문고 1개교 외에는 모두 심화과정 경제가 개설되어 있으며 학생들은 심화과정 개설과는 독립적으로 수능에서 경제를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겠다는 응답들을 보이고 있고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는 응답도 14.1%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조사에 응한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경제를 선택하겠다는 응답을 높게 보이고 있는 편인데 이는 조사에 응하는 학생 50여명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경제를 선택하여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포함된 탓으로 판단된다.

(1) 수능선택<sup>32)</sup>

= f(동기, 공부, 수학, 직업, 소득, 학력, 자료, 경제학, 경력, 특활; 기본 사항)

여기서 동기는 심화과정 경제 선택에 대한 동기를 말하며, 공부는 심화과정 경제 수강 시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경제과목 공부에 할애하였는가, 수학은 수학문제 정답, 직업과 학력은 부모의 직업과 학력, 소득은 가구소득, 경제학은 가족 중에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이 있는지 여부, 자료는 경제수업에서 학습자료의 활용 정도, 경력은 교사의 경제과목 강의 경력, 특활은 교사에 의해 제시되는 경제 관련 특별활동 등을 나타내며 기본 사항이란 대도시, 중소도시와 같은 지역, 인문고 또는 특목고 여부, 그리고 성별을 말한다. 독립변수 중 공부, 수학, 경력, 특활, 소득, 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은 가변수(dummy)형태인데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 <표 4-1>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sup>33)</sup>

하지만 종속변수에 해당하는 수능에서의 경제 선택 여부도 0과 1(binary choice)로 되어 있어서 위의 식 (1)은 로짓함수(logistic function)로 추정하기로 한다. 로짓함수는 선택 확률을 비선택 확률로 나누고 여기에 대수(logarithm)를 취한 것으로, 대체로 선형회귀분석이 갖는 추정 예측값이 0과 1 사이를 벗어나는 단점을 보완한다는 점 외에도 일반적으로 선형회귀 분석이 갖는 일의적인 추정계수 기능을 보완하기도 한다.<sup>34)</sup> 즉,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대해 갖는 영향이 독립변수의 크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한다. 예컨대 소득의 크기와 파업 참가와의 상관관계를 볼 경우, 소득이 점점 높아질수록 파업에 참가하는 경향은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을 때와는 다를 수 있는데 선형회귀분석의 경우 이를 표현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수학능력 시험에서 경제를 선택하겠다는 응답을 1, 선택하지 않겠다는 응답을 0으로 하여 종속변수를 구성한다.<sup>35)</sup> 식 (1)을 <표 4-1>과 같은 형태의 변수들로 추정한 결과가 다음 <표 4-2>이다.

<표 4-2>의 경우1은 <표 4-1>의 변수들이 수학능력 시험에서 경제과목을 선택할 확률에 얼마나 영향을 줄 것인가를 추정한 결과이다. 5% 이내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는 변수들로는 특목고, 동기1, 동기2, 필요, 자료, 경제학, 특활 등이 있다. 즉, 특목고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의 학생들보다 수학능력 시험에서 경제과목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심화과정 경제를 수강하게 된 동기가 경제과목이 흥미 있어서 그리고 대학 진학에 필요하기 때문에 라고 응답한 학생들의 경우가 흥미가 없거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학생들 보다 그 가능성 또한 높

32) 여기서 수능선택이란 수학능력 시험에서 경제과목을 선택하겠다는 응답을 의미한다.

33) 그러나 <표 4-2>의 경우2에서 보듯이 소득과 자료는 각 응답군을 4개의 가변수로 추정해 보기도 하였다.

34) 로짓함수에 의한 추정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계량경제학 서적을 참조할 수 있다. Maddala, *Econometrics*, McGraw-Hill, 1977, chap. 9.

35)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향후 선택할 수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배제하기로 한다.

다. 즉, 스스로 경제과목을 수강하겠다고 결정하는 경우 학생들의 경제과목 선택

〈표 4-1〉 독립변수들의 구성

변수	변수형태	내용
동기	동기1=흥미있고 좋아서, 즉 적극적 자발적 동기 동기2=대학진학에 필요하거나 점수 얻기에 용이해서, 즉 다소 자발적 동기 동기3=권유 또는 선택할 수 밖에 없어서, 즉 수동적 동기	각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가 독립변수로 주어지며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는 상수항에 포함.
공부	공부	심화과정 경제수업을 수강하는 동안 할애한 공부시간
수학	수학12	전체 수학문제를 푼 결과 점수
직업	직업=부모 중 적어도 한분 이상 전문직	전문직은 ⑦ 경영/관리직(5급 이상) 또는 ⑧ 전문/자유직에 응답한 경우
소득	소득	4구간의 소득(1~4)를 증가 크기 그대로
학력	학력=부모 중 적어도 한분이 고학력	고학력은 대졸 이상의 경우
자료	자료	학습자료 활용 빈도(1~4)를 증가 크기 그대로
경제학	경제학	친척 중에 경제학 전공자가 있는 경우
경력	경력1=교사 경력 전체 경력2=심화과정 경제를 가르친 경력	경제를 가르치는 각 학교 교사들의 평균 경력. 예컨대 3명의 교사가 있고 각각 경력이 10년, 8년, 3년이면 평균 값인 7년을 경력의 값으로 함.
특활	특활	경제와 관련한 특별활동을 제시하고 있는 경우를 1, 그렇지 않은 경우를 0으로 하여 각 학교 교사들의 값을 합산 평균. 예컨대 3명의 교사가 있는 경우 두 분은 특활을 하지만 나머지 한분이 특별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2/3=0.67$ .
기본사항	지역=대도시 특성=특목고 성별=남	중소도시 이하 소재 고등학교의 경우나, 인문고, 여자 학생의 경우는 상수항에 포함.

〈표 4-2〉 식 (1)의 추정 결과

변수 \ 추정 결과	경우1	경우2	경우3
상수항	2.922(1.752)**	0.764(0.455)	0.902(0.617)
대도시	-0.329(0.624)	-0.150(0.305)	-0.260(0.554)
특목고	2.664(2.398)*	1.815(2.158)*	1.577(1.909)**
남학생	-0.300(0.694)	0.139(0.315)	-0.264(0.643)
수학12	-0.070(0.641)	-0.033(0.309)	-0.028(0.268)
동기1	3.257(4.525)*	3.124((4.530)*	3.194((4.613)*
동기2	1.728(3.002)*	1.647(3.013)*	1.825(3.331)*
동기3	-0.211(0.335)	-0.380(0.633)	-0.188(0.316)
공부	0.092(0.695)	0.094(0.713)	0.073(0.585)
자료	-0.403(2.102)*		
자료2		0.679(1.316)	
자료3		-0.961(1.699)**	
자료4		-0.557(0.950)	
자료A			-0.034(0.078)
직업	0.424(0.819)	0.226(0.441)	0.174(0.373)
소득	-0.473(1.608)		
소득2		0.088(0.101)	
소득3		-0.507(0.576)	
소득4		-0.742(0.733)	
소득A			-0.550(1.334)
학력	0.490(1.103)	0.424(0.938)	0.409(0.959)
경제학	-1.020(1.932)**	-0.798(1.467)	-0.998(1.992)*
경력1	0.012(0.401)	-0.008(0.266)	0.005(0.194)
경력2	0.017(0.222)	0.036(0.049)	0.003(0.053)
특활	1.323(1.907)**	1.235(2.002)*	1.308(2.199)*
	Pseudo R <sup>2</sup> =0.177 N=732 Cases correct=691	Pseudo R <sup>2</sup> =0.177 N=753 Cases correct=711	Pseudo R <sup>2</sup> =0.158 N=753 Cases correct=710

- 주: 1) ( ) 속은 t-값의 절대치이다. \*은 5%이내에서, \*\*는 10% 이내에서 유의함을 나타낸다.  
 2) 경우2는 학습자료 활용과 소득수준을 경우1에서와 같이 즉, ① 전혀 활용하지 않았다, ② 1-4회, ③ 5-9회, ④ 10회 이상, 또는 ① 100만원 미만, ② 100~299만원, ③ 300~499만원, ④ 500만원 이상 등으로 그 값이 증가함에 따라 수학능력 시험에서 경제를 선택하는 경향을 구하지 않고 각각의 네 경우를 가변수로 취급하여 각 구간에 속하는 집단들의 선택 경향을 구하여 본 것이다.  
 3) N은 관찰치 수를 나타내며 cases correct는 추정한 결과가 0.5 이상인 관찰치 수를 나타낸다. 따라서 표본 집단은 상대적으로 경제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Pseudo-R2 값에 대해서는 RATS version 5; Reference Manual, 2000, p. 195 참조.  
 5) 경우3은 자료활용을 한 경우 자료A로 하고, 소득이 높은 경우를 소득A로 하여 추정한 결과이다. 여기서 자료A는 설문 중 ① 전혀 활용하지 않았다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를 의미하며, 소득 A는 ③ 300~99만원, ④ 500만원 이상의 경우를 의미한다.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학교에서 특별활동으로 경제에 관련한 프로그램이 많이 제시될수록 경제과목 선택 가능성 또한 높다. 2장의 관련 항목 설명 과정에서 나타났듯이 구체적으로 교사들이 제시하고 있는 특별활동들은 각종 경제 관련 경시대회 준비하기, 신문기사 읽고 정리하기, 경제체험의 일환으로 창업 및 모의 투자 해보기, 파워 포인트 제작해 보기 등이어서 이러한 학습활동들이 학생들에게 경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에는 물론 궁극적으로 수학능력 시험에서 경제과목을 선택하는 경향을 높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수업 시간에 보조 학습자료를 많이 사용했다는 학생일수록 수학능력 시험에서 경제를 선택하겠다는 응답 경향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매우 특이하다. 학습자료를 많이 활용할수록 학생들로 하여금 경제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높이고 수학능력 시험에서 경제과목 선택에 긍정적인 기능을 할 것으로 가정했으나 우리의 표본은 이를 뒷받침하지 않았다. 도리어  $-0.464$ 로 의외의 결과를 보여서 각 4개 항, 즉 ① 전혀 활용하지 않았다, ② 1~4회, ③ 5~9회, ④ 10회 이상에 대해 이들을 소집단으로 나누어 각각을 가변수로 하여 추정한 결과가 경우2이다. 경우2에 의하면 전혀 활용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학습자료를 5~9회 활용한 경우가 10% 이내에서 유의하게  $-1.094$ 를 기록하였고 나머지는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수학능력 시험에 관해서 본다면 교과서의 내용을 이해하고 시험 준비를 해야 하는 빠듯한 일정에서 학습자료를 활용한 수업은 학생들에 의해 기피되거나 교사 역시 이에 상응해 수업을 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달리 해석한다면 학습자료가 학생들의 경제이해에 충분한 도움을 주지 못하여 부정적일 수도 있다.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활용되는 학습자료의 종류는 어떠하며 학생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가정의 소득이나 학부모의 직업, 학력 등은 수학능력 시험에서 경제과목을 선택하는 데에는 유의한 결과를 주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교사들의 강의 경력도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경제학이 교사들에게 완전하게 숙지될 경우 학생들의 경제지식 습득에 유효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는 얼마나 오랫동안 경제과목을 강의했는가 하는 경력만으로는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경제학 전공자가 가족 중에 있다는 것도 학생들이 수학능력 시험에서 경제과목 선택을 선택하는 데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자료활용은 물론 교사의 경력 등과 함께 좀더 상세한 조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4-2>에서 보듯이 몇 가지 형태로 경제를 선택할 확률을 추정해 본 결과는 자발적 동기 즉 경제과목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학생들의 수능선택에 결정적이라는 점이다. 모든 추정 식에서 흥미는 아주 강력한 영향력이 있는 변수로

판명되었다. 물론 경제에 대한 흥미가 있고 없고의 차원이 아니라 해도 대학진학에 필요성을 느끼는 경우도 수학능력 시험에서 경제과목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동시에 교사들에 의해 제시되는 경제 관련 특별활동 프로그램도 학생들에게 매우 긍정적인 기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종속변수가 0과 1로 제한되어 있을 때에 일반적인 선형회귀 분석은 적합하지 않다. 그 이유 중의 하나로 선형회귀분석이 독립변수들의 모든 영역에서 종속변수에 주는 영향이 일정하여 성공 확률의 경우처럼 그 정도가 아주 저조할 때와 매우 높을 때에 상이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다. 이제 구체적으로 추정된 확률, 즉 학생들의 각자 처한 환경에서 얼마나 수학능력 시험에서 경제과목을 선택하려고 하는가 하는 확률을 토대로 특정 독립변수의 변화가 얼마나 수능선택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 <표 4-3>은 실제로 설문 조사에 응한 두 학생의 각 독립변수들의 값과 추정식에 의해 제시된 성공확률 즉, 수학능력 시험에서 경제과목을 선택할 확률을 나타내고 있다.

<표 4-3>은 실제 설문 조사에 응한 두 학생의 상황을 각각의 경우1 열에서 볼 수 있다. 학생1은 서울의 강동구에 위치한 일반고에 재학하고 있었으며 여학생으로서 수학 문제 성적은 12점 만점에 7점을 받았으며, 자발적 동기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변의 권유로 심화과정 경제를 선택했다. 또한 이 여학생은 심화과정 경제를 수강하는 동안 주당 평균 4시간을 이 과목 공부에 할애한다고 했으며, 부모 중 누구도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지 않고 가구소득은 100-299만원 사이, 부모의 학력은 모두 고졸 이하, 그리고 집안에 경제학 전공자는 없다는 것이 이 학생의 신상명세이다. 학생1이 재학하고 있는 이 학교에는 경제를 가르치는 교사는 5명인데 이들의 평균 교사 경력은 18.35년이고 심화과정 경제를 가르친 경력은 평균 7.4년이었다. 그리고 경제와 관련된 특별활동은 4분이 제시하고 있고 나머지 한분은 그렇지 않아서 이 학생이 평균적으로 특별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은 0.8로 계산되었다.

경우1에 의한 학생1의 수학능력 시험에서의 경제과목 선택 확률은 하단에 표시되어 있듯이 0.751이다. 이 학생이 경제과목에 흥미를 가지고 있었다면 경제과목 선택 확률은 다음 열의 하단에서 보듯이 0.987로 증가해 확률은 23.5%p나 증가한다. 만일 교사들에 의해 특별활동이 전혀 제시되지 않는다면 이 학생의 선택 확률은 0.512로 무려 23.9%p나 내려간다.

〈표 4-3〉 경우1에 의한 선택확률 변화 예

	학생1			학생2		
	경우1	동기1 가정	특활 가정	경우1	동기1 가정	특활 가정
대도시	1	1	1	0	0	0
특목고	0	0	0	1	1	1
남학생	0	0	0	0	0	0
수학12	7	7	7	12	12	12
동기1	0	1	0	0	1	0
동기2	0	0	0	0	0	0
동기3	1	1	1	1	1	1
공부	4	4	4	2	2	2
자료	4	4	4	4	4	4
직업	0	0	0	1	1	1
소득	2	2	2	4	4	4
학력	0	0	0	1	1	1
경제학	0	0	0	0	0	0
경력1	18.35	18.35	18.35	10.6	10.6	10.6
경력2	7.4	7.4	7.4	5.58	5.58	5.58
특활	0.8	0.8	0	1	1	0.2
확률	0.751	0.987	0.512	0.975	0.999	0.912
확률 변동		+0.235	-0.239		+0.023	-0.062

주: 1) 경우1은 <표 4-2>에서 경우1에 의한 추정 결과를 말하며 동기1 가정은 가변수 동기1에 변화를 주었을 때, 특활 가정은 특활에 변화를 주었을 때를 말한다.

이번에는 학생2의 경우를 보기로 한다. 학생2는 강원도의 군 이하 단위에 소재한 특목고에 재학 중인 여학생으로서 이 학생 경우1에서 보듯이 수학 성적은 12점 만점이고, 심화과정 경제과정을 선택한 이유는 앞의 학생과 같다. 또한 이 학생은 공부시간을 주당 2시간 할애했으며, 수업시간에 자료 활용 정도는 10회 이상이었고 부모 중에 적어도 한분은 직업이 전문직이고 가구소득은 500만원 이상이며 집안에 경제학을 전공한 친척은 없었다. 이 학교에 경제과목을 가르치는 교사는 한분으로 교사경력과 경제과목 강의 경력은 각각 10.6년, 5.58년이며 이 분은 학생들에게 경제와 관련한 특별활동을 제시하고 있었다.

경우1에 의한 학생2의 수학능력 시험에서의 경제과목 선택 확률은 하단에 표시되어 있듯이 0.975로 높다. 이 학생이 경제과목에 흥미를 가지고 있었다면 경제과목 선택 확률은 그 다음 열의 하단에서 보듯이 0.999로 증가해 확률은 2.3%p 증가한다. 만일 교사에 의한 특별활동이 전혀 제시되지 않는다면 이 학생의 선택 확률은 0.912로 6.2% 내려간다.

학생1과 학생2의 경우를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 있는 학생에 있어서의 특정 변수의 조건 변화는 선택 확률이 낮은 상태에 있는 학생보다 그 영향력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역으로 말하면 경제과목을 수학능력 시험에서 선택하고자 하는 경향이 낮은 학생들일수록 자발적 동기나, 교사들에 의한 특별활동과 같은 프로그램이 더 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더 많은 학생들이 수학능력 시험에서 경제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당연히 더 많은 학생들이 심화과정 경제를 수강할 것이고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경제에 대한 지식과 이해 정도가 크게 높아질 것은 당연하다.

## 4-2 자발적 동기, 흥미에 대한 분석

위의 수학능력 시험에서의 경제과목 선택 요인 분석에서 밝혀진 가장 뚜렷한 결과는 학생들이 흥미, 즉 자발적 동기에 의해서 심화과정 경제를 선택하는 경우여야 수학능력 시험에서도 경제과목을 선택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가장 자발적인 동기인 흥미는 어떤 특징을 갖는가, 즉 흥미는 어떤 요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경제과목에 대한 고등학생들의 흥미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는 그 자체로 매우 단순하지 않아 보인다. 경제과목에 대한 고등학생들의 흥미가 학생층의 일반적인 문화나 생활 습관, 지식 형성의 여러 단면들, 나아가 그들이 지향하는 보편적이 가치 관과는 어떤 면들에서 공유되는 것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는지 다양한 측면에서의 요인들이 있을 것이나 본 연구에는 그러한 자료들이 구비되어 있지 않다. 단지 설문 조사에 의해 습득된 경제수업과 관련한 결과만을 가지고 있다. 이제 수능선택 요인을 살펴볼 때와 같이 경제수업을 구성하는 여러 요인 중에서 경제과목에 대한 흥미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변수들을 중심으로 어느 것들이 흥미에 영향을 주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앞 절 4-1에서 수학능력 시험에서 경제과목을 선택할 것인가가 궁극적인 귀결점이라고 가정했으므로 이제 수능선택 응답 결과를 빼고 나머지 변수들을 대상으로 흥미와의 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함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 (2) 흥미

$$= f(\text{동기, 공부, 수학, 직업, 소득, 학력, 자료, 경제학, 경력, 특활; 기본사항})$$

경제과목에 흥미가 있다 없다는 여부는 심화과정 경제를 선택할 당시의 여러 동기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그 당시의 다른 동기나 가정환경, 개인의 능력 등은 흥미를 갖고 있었는가에 대한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데에 독립변수로서 적절하지만, 공

부시간이나 자료의 활용 등은 심화가정 경제수업 선택 이전의 것이 흥미에 대한 독립변수로서 더 합당하다 할 것이다. 즉, 자료나 공부시간은 일반 사회의 수업에 대한 질문 결과를 활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점이다. 공부와 자료의 값을 일반사회 경제단원 수업과 관련한 결과를 쓰기로 하고 교사의 경력1과 경력2를 전체 교사 경력, 일반사회 수업에서 경제 단원을 가르친 경력으로 하고 추정한 결과가 다음 <표 4-4>의 경우1이며, 경우2는 일반사회 경제 단원 대신 심화과정 경제수업에서의 공부시간과 자료활용, 그리고 심화과정 교사 경력을 각각 공부A, 자료A, 경력A로 하고 이를 경우1에 추가하여 추정한 결과이다.<sup>36)</sup>

<표 4-4> 식 (2)의 추정 결과

변수 \ 추정 결과	경우1	경우2
상수항	-0.984(1.882)**	-0.316(0.451)
대도시	-0.515(3.646)*	0.243(1.186)
특목고	0.583(2.760)*	0.702(2.495)*
남학생	0.364(2.479)*	-0.056(0.281)
동기2	0.184(1.323)	-0.724(4.103)*
동기3	-0.879(6.042)*	-1.816(9.692)*
공부	0.018(0.451)	-0.106(1.607)
공부A		0.011(0.086)
자료	0.148(2.025)*	0.157(2.124)*
자료A		0.147(1.097)
수학12	0.077(1.840)**	0.106(1.955)**
직업	-0.201(1.173)	-0.045(0.202)
소득	-0.056(0.577)	-0.032(0.261)
학력	-0.018(0.116)	0.016(0.081)
경제학	0.226(1.182)	0.406(1.623)
경력1	0.005(0.319)	0.036(1.484)
경력A		-0.032(0.738)
경력2	-0.032(1.748)**	-0.058(2.098)*
특활	0.783(4.478)*	0.757(3.154)*
	Pseudo R <sup>2</sup> =0.111 N=1,000 Cases correct=633	Pseudo R <sup>2</sup> =0.204 N=746 Cases correct=517

주: 1) ( ) 속은 t-값의 절대치이다. \*은 5%이내에서, \*\*는 10% 이내에서 유의함을 나타낸다.

36) 심화과정과 관련한 사항을 추가하여 추정해 본 이유는 본 연구의 설문 조사가 이루어진 시기가 1학기 말에서 심화과정 경제수업에서 발생한 사항들도 흥미있다는 응답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 탓이다.

추정 결과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중소도시 이하 지역과 특목고 재학 여부, 자료활용, 특활 등의 변수는 경제과목에 대한 흥미에 긍정적으로, 수동적인 입장에서 심화과정 경제를 선택하게 된 점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수학 성적과 교사의 일반사회 강의 경력은 각 10% 이내에서 긍정 및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심화과정 수업까지 고려한 결과는 학교의 지역별 소재 여부는 유의성을 상실하고 있으며, 대신 동기2 즉, 필요에 의한 선택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나고 있다.

전반적으로 흥미와 관련한 추정 결과는 특목고 여부, 수학 성적 여부 등 경제수업 이전의 사전적인 요인을 배제한다면, 학생들이 자발적 동기를 갖고 있다는 점이 경제과목에 대한 흥미를 증진시키는 데에 중요할 뿐만 아니라 수업에서 자료의 활용과 특활 프로그램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 4-3 특별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

교사들이 경제수업과 관련한 특별활동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흥미는 물론 결과적으로 수학능력 시험에서 경제과목을 선택하는 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은 앞의 두 절의 분석에서 밝혀졌다. 이번에는 교사들과 관련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특별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교사들이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학생들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교사 개인의 경력이나, 의욕, 운영 여건 등에 의존할 것이다. 하지만 교사 설문은 전공, 교사 경력, 특별활동, 자료제작 및 활용 정도에만 그치고 있어서 부득이 제한된 조사 결과에만 의존하여 살펴 볼 수밖에 없다. 교사 설문 조사 항목들을 중심으로 특활 프로그램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변수들을 함수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 (3) 특별활동

$$= f(\text{전공여부, 경력, 자료활용, 자료제작; 기본 사항})$$

전공여부, 경력, 자료활용, 자료제작 및 기본사항은 다음 <표 4-5>와 같으며 종속변수인 특별활동 여부는 0과 1로 주어진다.<sup>37)</sup>

37) 앞에서는 특별활동이 각 학교의 교사의 수와 특별활동을 제시하는가를 고려한 학교당 평균치이었으나 여기서는 교사 각각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표 4-5〉 독립변수들의 구성

변수	변수형태	내용
전공	전공	사범대학의 일반사회 또는 일반 대학의 경제학 전공의 경우 1, 나머지는 0
경력	경력1=총 교사 경력 경력2=심화과정 경제과목 강의 경력 경력3=일반사회 경제 단원 강의 경력	모두 실수 값
자료활용	자료활용	교과서 외에 학습자료를 활용하는 경우 1, 교과서만 활용하는 경우 0
자료제작	자료제작1=가끔 만든다. 자료제작2=매우 자주 만들어 활용한다.	전혀 만들어 본 적이 없다는 0으로 상수항에 포함
기본사항	지역=대도시 특성=특목고 성별=남	중소도시 이하 소재 고등학교의 경우나, 인문고, 여자 교사의 경우는 상수항에 포함.

교사들 관련 항목에 대해 특별활동을 제공하는 경우를 추정한 결과는 <표 4-6>과 같다. <표 4-6>의 추정 결과는 특활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요소들로는 특목고 재직 여부와 교사의 경력임을 보여주고 있다. 특별활동이 결과적으로 학생들에게 흥미를 갖게 하거나 나아가 수학능력 시험에서 경제과목을 선택하게 하는 데에 유의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 절에서 분석되었지만, 교사가 특별활동을 실시하는가의 여부가 학습자료의 활용이나 제작과 상관관계가 적은 것은 경제와 관련한 수업과 내적이고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하는 것이다. 즉, 학습자료의 제작과 활용의 과정에서 특별활동의 필요성을 느꼈거나 또는 수업 내용의 보완에 특별활동의 역할이 기대되었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그 외적인 요인, 경시대회라든지 모의 주식 투자 등 수업과는 다소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할지라도 학생들에게 궁극적으로 경제에 대한 흥미를 고취해 주기 위한 시도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특별활동이 경제지식의 습득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은 자명하겠지만 그 동기가 교사의 해당 학습과 직접적인 관계가 약한 것이 아닌가 보여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료의 크기가 작아서 이 역시 보다 심층적인 추가 연구를 필요로 한다.

〈표 4-6〉 추정 결과

변수	추정 결과
상수항	0.244(0.126)
대도시	-0.157(0.200)
특목고	-2.233(2.327)*
여교사	-0.542(0.519)
전공	-1.115(1.066)
경력1	-0.221(2.131)*
경력2	0.245(1.724)**
경력3	0.252(2.300)*
자료활용	1.960(1.568)
자료제작1	0.204(0.125)
자료제작2	-0.358(0.207)
	Pseudo R <sup>2</sup> =0.420
	N=50
	Cases correct=39

주: 1) ( ) 속은 t-값의 절대치이다. \*은 5%이내에서, \*\*는 10% 이내에서 유의함을 나타낸다.

## 제5장 결론 및 향후 과제

전국의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를 토대로 경제수업의 모습과 수학적능력 시험에서 경제과목을 선택하는 데에는 어떤 요소들과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가 대한 연구 결과는 매우 제한적이고 또한 전반적인 고등학교의 상황을 충분히 보여준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조사 결과로부터 얻은 몇 가지 유의한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수업이 학교 내에서 집단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았을 때, 학습동기나 개인능력 가정환경, 그리고 학교수업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학교별, 지역별 차이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인문고보다는 특목고의 결과가 높았으나, 지역별로는 가정환경과 일부 학습동기 요소에 대해 대도시가 더 높은 결과를 보였으나 대부분의 학습동기나 학교수업 면에서는 중소도시가 더 높은 결과를 보였다.

둘째, 학생들의 학습동기에 비해 학교 경제수업은 비례하여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특별활동이나 학습자료의 활용이 흥미를 높이고 경제에 대한 이해도 높인다고 가정한다면 수요와 공급 사이에 적지 않은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불균형에 대해서는 학습자료의 종류와 활용 방법은 어떠하며 이러한 학습자료들이 경제 지식 습득에 얼마나 유용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등에 대한 좀 더 심층적인 조사,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현실적으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수학능력 시험에서 경제과목을 선택할 수 있을 정도로 이어져야 경제에 대한 이해를 높일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학생들이 경제과목에 대해 흥미를 가져야 하며 동시에 특별활동과 같은 프로그램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정환경이 학생들의 수학능력 시험에서 경제를 선택하는 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결과는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학교 내 경제수업 공급이 청소년들의 경제 이해력을 높이는 데에 더욱 중요함을 시사한다.

넷째, 위의 분석과 관련하여 학습자료의 기능이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최근 많은 학습자료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공급되고 있는 현실에서 학습자료에 대한 보다 면밀하고, 그 효과까지도 고려한 조사와 연구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종래의 교과서가 가지고 있던 결함들, 즉 어렵고 딱딱하며 현실과 괴리되어 있다는 비판을 극복하기 위해 개선된 교과서가 제작되고 있고, 많은 보조 학습자료들이 개발되고 있으나 공급자 위주의 자료는 지양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섯째, 학생들이 경제과목을 수학능력 시험에서 선택할 가능성은 추정된 확률이 낮을수록 그 증가 폭이 클 수 있으므로 유의한 결과를 보인 흥미와 특활 등의 요소들은 수능에서 경제과목을 선택함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저조한 여건에 있는 학생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는 특별히 경제 선택과 관련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여건에 있는 이들 학생들의 상황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요구한다.

여섯째, 특별활동을 운영하는 교사들에 대해서도 보다 상세한 조사, 분석이 필요하며 교사들로 하여금 효과적인 특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외적인 여건에 대해서도 연구가 필요하다.

이번 조사, 연구는 개괄적인 단서의 제공이나 문제의 제기 수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이러한 결과는 제한된 표본에 의한 것이므로 다음과 같은 추가 연구를 필요로 한다.

첫째, 더 많은 자료를 통해 보다 유의한 요소들을 찾아보아야 한다. 이는 표본의 수 뿐만 아니라, 이번 설문 조사에서 배제되었던 요소들도 고려해야 하며 각 요소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해야만 경제이해를 높이기 위한 방안의 모색이 제대로 될 틀 속에 담겨질 수 있다.

둘째, 학생들의 경제에 대한 지식 습득은 물론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를 궁극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현실의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그리고 고등학교 경제수업에 적용될 수 있는 수업모델을 찾아내도록 조사와 연구 작업은 설계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향후의 과제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경제학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개념과 응용 예 등은 수요자가 받아들이는 정도에만 그칠 것이므로 이들이 받아들이는 기본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료의 형태라든지 소재는 물론 이를 교육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와 같은 기본 토대의 구축 없이는 그 효과는 반감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 토대란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사회에 발을 들여 놓으면서 접해야 하는 경제생활의 여건은 물론 전반적인 시장경제의 이해가 가능한 경제교육의 범위를 의미한다.

## 참고 자료

-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학교 경제교육의 활성화 방안』, 2005. 2.  
-----, 『학교 경제교육의 활성화 방안』, 2004. 3.  
-----, 「고등학교 경제경시대회 관련 설문조사」(보도자료), 2004. 2.
- Ballard, Charles L. and Johnson, M. F., "Basic Math Skills and Performance in an Introductory Economics Class," *Journal of Economic Education*, Winter 2004, 35, pp. 3-23.
- Durden, Garey C. and Ellis, L. V., "The Effects of Attendance on Student Learning in Principles of Economics," *American Economic Review*, May 1995(Papers and Proceedings), 85, pp. 343-346.
- Krohn, Gregory A. and O'Connor, C. M., "Student Effort and Performance over the Semester," *Journal of Economic Education*, Winter 2005, 36, pp. 3-28.
- Maddala, *Econometrics*, McGraw-Hill, 1977, chap. 9.
- National Council on Economic Education, *Mathematics and Economics: Connections for Life*, 2001, pp. 1-17.
- RATS version 5; Reference Manual, 2000, 195.
- Romer, David, "Do Students Go to Class? Should They?"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Summer 1993, 7, pp. 167-174.
- Snedecor, George W. and Cochran, William G., *Statistical Methods*, The Iowa State University Press, 1967, p. 1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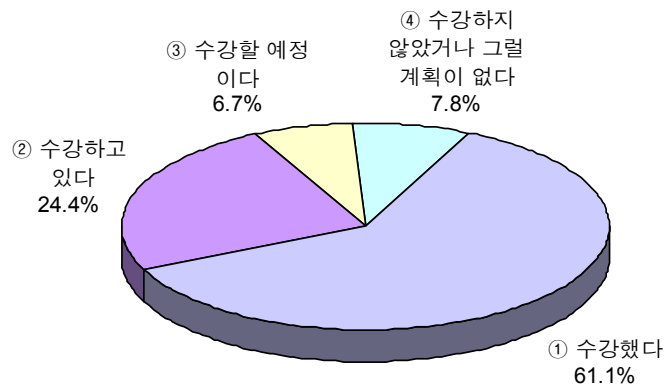
## <부록 1> 설문조사에 응한 학교 분포

학교	학교2	학생수	교사수	지역분류	학교분류
강원1	강릉 ㄱ고등학교	45	1	중소도시	인문고
강원2	횡성 ㄱ고등학교	57	1	중소도시	특목고
경기1	일산 ㄴ고등학교	62	2	중소도시	인문고
경기2	안양 ㄱ고등학교	57	2	중소도시	인문고
경기3	안산 ㄱ고등학교	55	-	중소도시	인문고
경기4	하남 ㄴ고등학교	50	4	중소도시	인문고
경북1	영주 ㄱ고등학교	50	1	중소도시	인문고
경북2	포항 ㄱ고등학교	50	3	중소도시	특목고
광주1	광주 ㄱ고등학교	51	2	대도시	인문고
대구1	대구 ㄱ고등학교	45	2	대도시	특목고
대구2	대구 ㄱ고등학교	50	3	대도시	인문고
대전1	대전 ㄱ고등학교	46	1	대도시	인문고
대전2	대전 ㄱ고등학교	51	2	대도시	인문고
부산1	부산 ㄱ고등학교	44	8	대도시	특목고
서울1	서울 ㅎ고등학교	47	2	대도시	인문고
서울2	서울 ㄱ고등학교	68	1	대도시	실업고
서울3	서울 ㄱ고등학교	53	-	대도시	특목고
서울4	서울 ㄱ고등학교	48	5	대도시	인문고
울산1	울산 ㄱ고등학교	55	1	중소도시	인문고
인천1	인천 ㅎ고등학교	54	-	중소도시	인문고
인천2	인천 ㄱ고등학교	39	-	중소도시	인문고
전남1	순천 ㄱ고등학교	61	1	중소도시	인문고
전남2	순천 ㄱ고등학교	53	1	중소도시	인문고
전북1	전주 ㄱ고등학교	59	3	중소도시	인문고
전북2	전주 ㄱ고등학교	47	1	중소도시	특목고
제주1	제주 ㄴ고등학교	82	1	중소도시	인문고
제주2	제주 ㄱ고등학교	68	2	중소도시	인문고
충남1	논산 ㄱ고등학교	49	2	중소도시	인문고
충북1	청주 ㄱ고등학교	52	-	중소도시	인문고
<b>합 계</b>		<b>1,548</b>	<b>52</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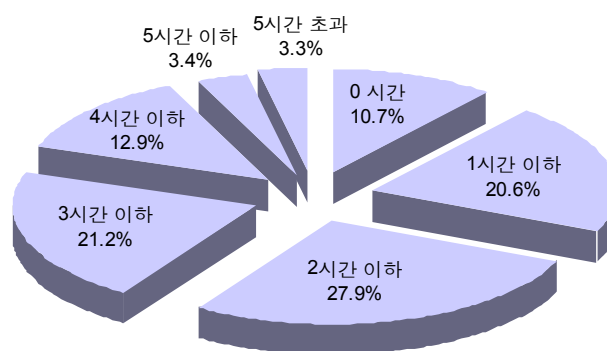
주: 1) 설문에 응한 학생들은 문과 학생들로서 한 학교 당 50명을 기준으로 조사하였다.  
 2) 강원2 고등학교는 소재지로는 읍·면 단위에 해당하지만 중소도시에 포함하였다.

## <부록 2> 설문조사의 개략적인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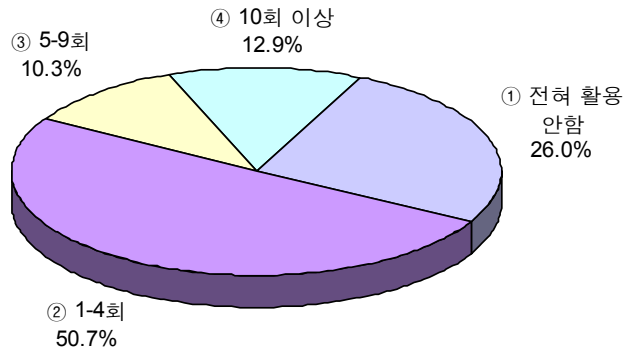
<그림 A 2-1> 사회과목의 경제부분 수강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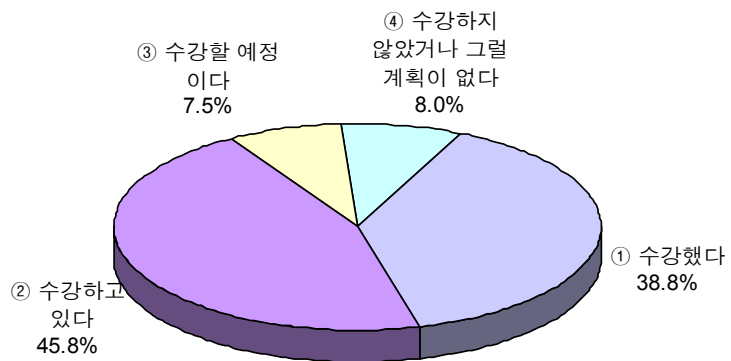
<그림 A 2-2> 사회과목의 경제공부에 할애한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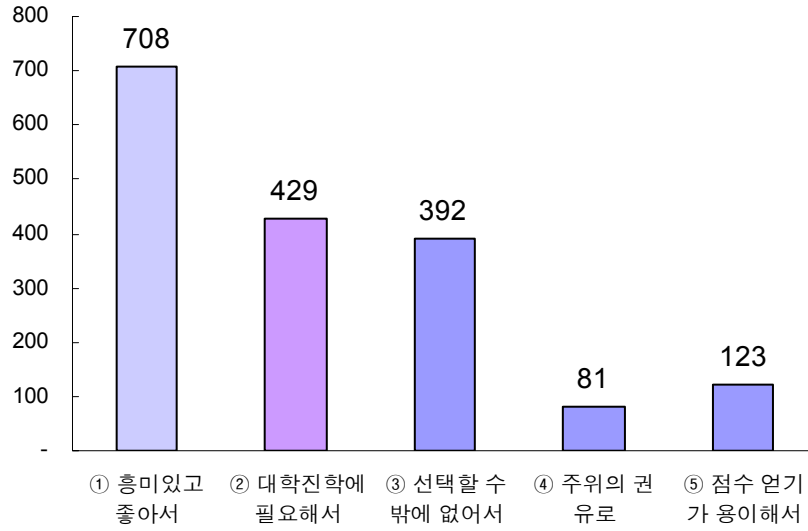
<그림 A 2-3> 사회과목 경제수업 중 학습자료 활용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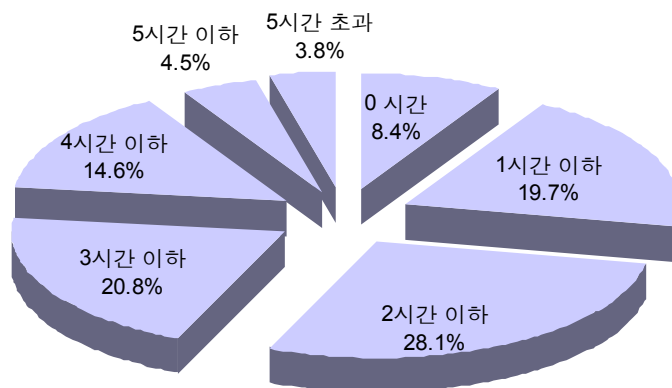
<그림 A 2-4> 심화과정의 경제과목 수강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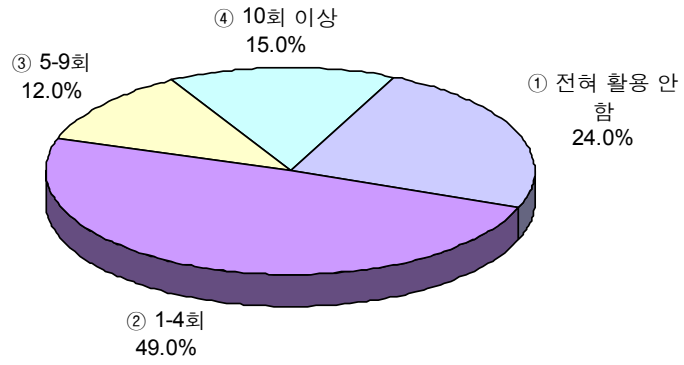
<그림 A 2-5> 심화과정 수강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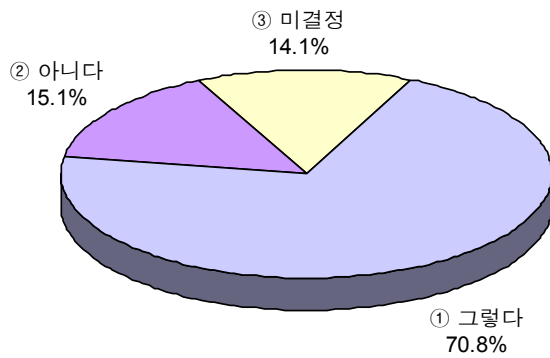
<그림 A 2-6> 심화과정 경제 공부에 할애한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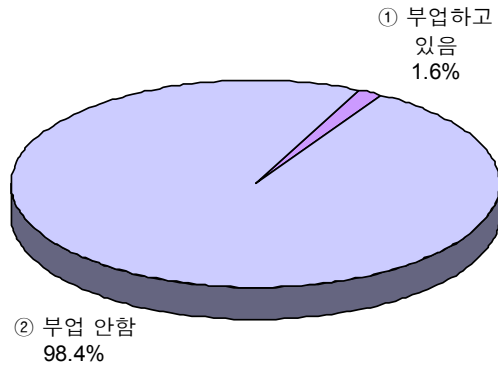
<그림 A 2-7 > 심화과정 경제수업 중 학습자료 활용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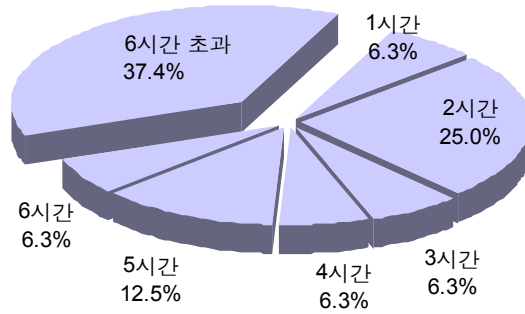
<그림 A 2-8> 향후 수능에서 경제 선택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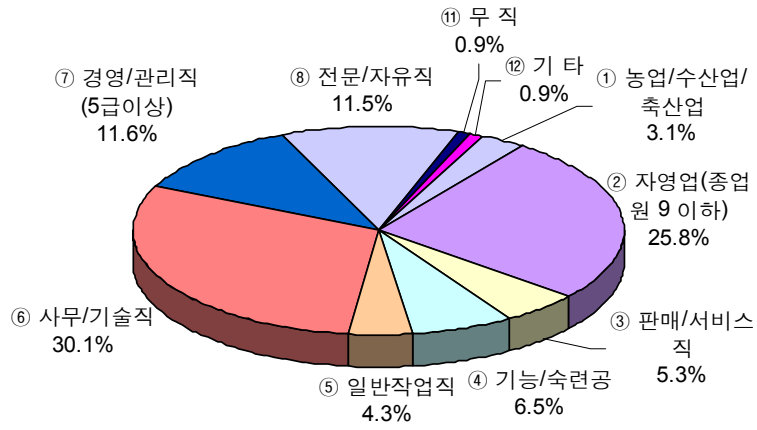
<그림 A 2-9> 부업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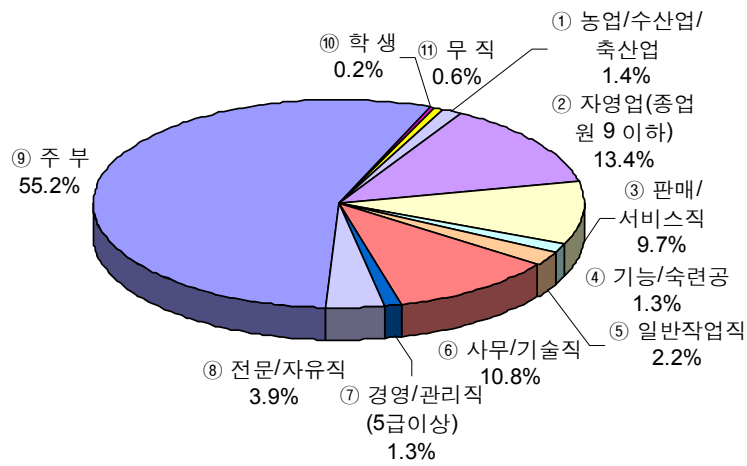
<그림 A 2-10> 주당 부업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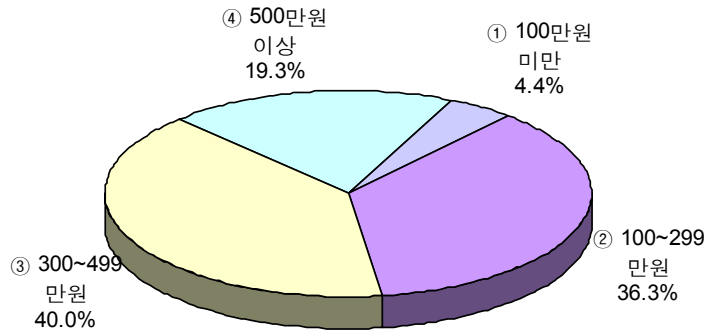
<그림 A 2-11> 부모님 직업(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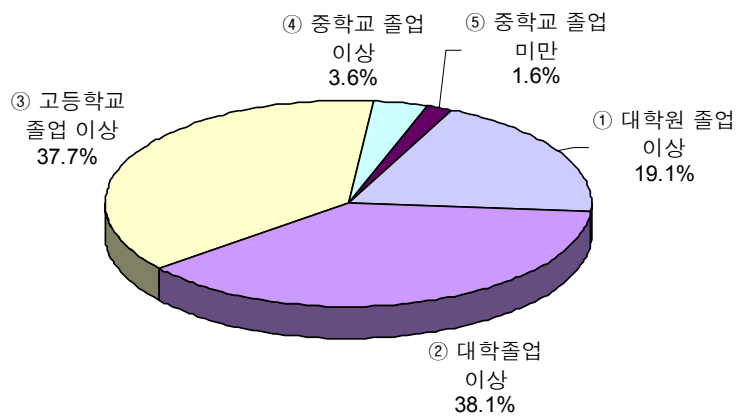
<그림 A 2-12> 부모님 직업(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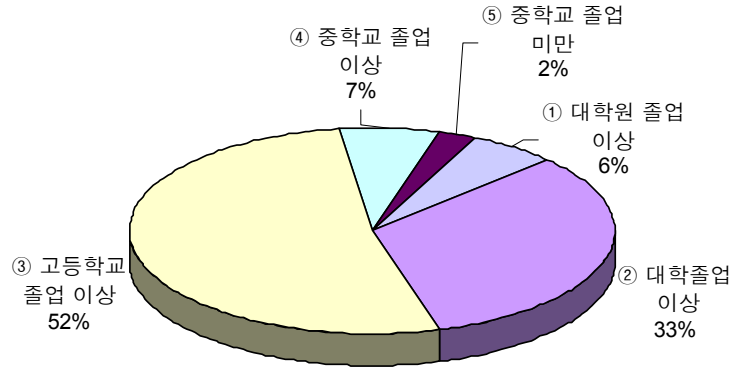
<그림 A 2-13> 가구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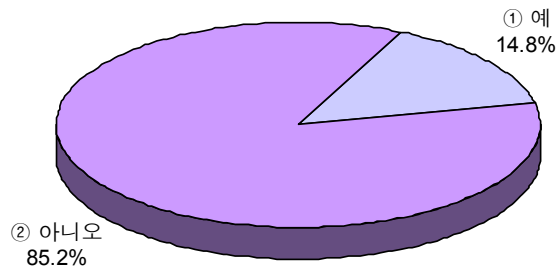
<그림 A 2-14> 부모 학력(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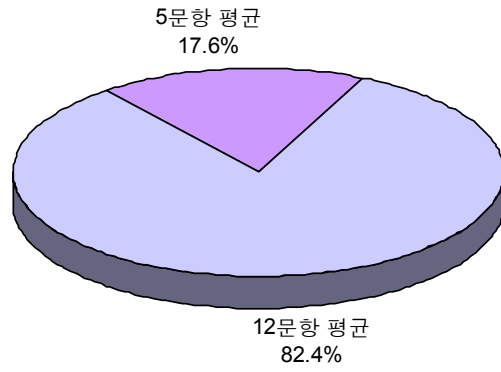
<그림 A 2-15> 부모 학력(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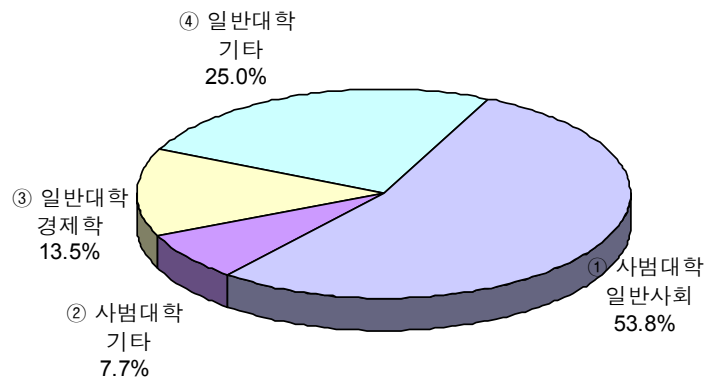
<그림 A 2-16> 가족 중 경제학 전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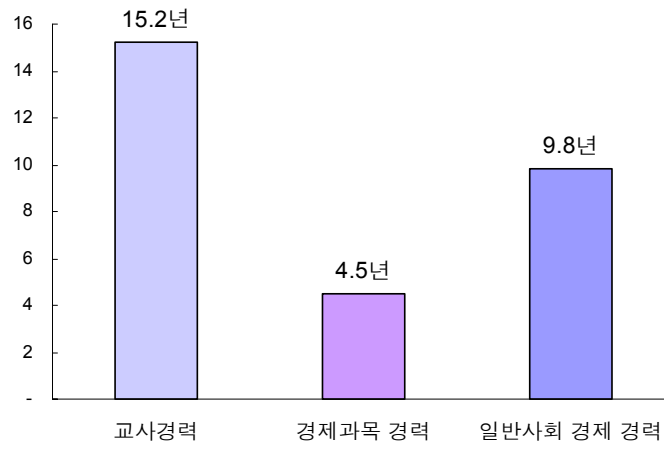
<그림 A 2-17> 수학문제에 대한 정답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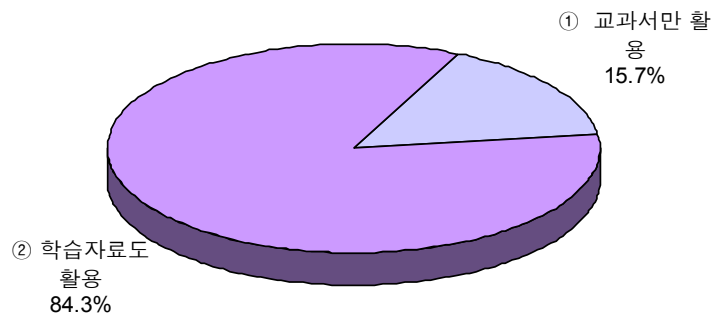
<그림 A 2-18> 경제 담당 교사의 전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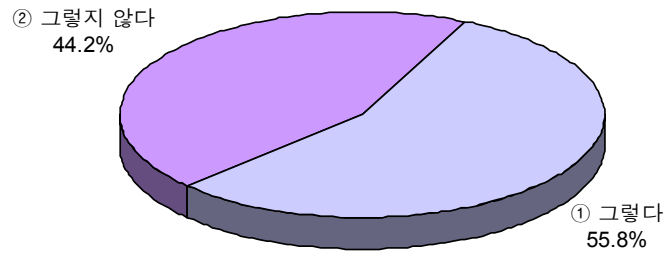
<그림 A 2-19> 경제 담당 교사의 평균경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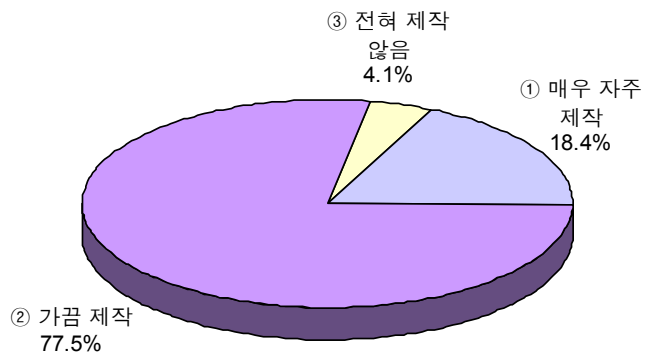
<그림 A 2-20> 경제수업에서 학습자료 활용



<그림 A 2-21> 경제 관련 특별활동 실시



<그림 A 2-22> 학습자료 제작





8.  $x=a/b$ 라고 합니다.  $a=6$ ,  $b=2$ 라면  $x$ 는 얼마입니까?

- ( ) ① 12                      ( ) ② 8                      ( ) ③ 3  
( ) ④ 4                      ( ) ⑤  $1/3$

9.  $(1/2) \div (2/3)$ 를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 ( ) ① 3                      ( ) ②  $3/2$                       ( ) ③  $3/4$   
( ) ④  $4/3$                       ( ) ⑤  $1/3$

10. 영수의 학교 급식통장에 50,000원이 입금되었고 통장 입금액을 근거로 영수는 학교 급식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점심식사비 2,000원씩이 매일 점심식사 직후에 학교 식당 계좌로 이체됩니다. 영수가 매일 자신의 통장에 얼마가 남아 있는가를 알고자 이러한 내용을 직선의 방정식으로 표현할 때,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입니까?

- ( ) ① -25                      ( ) ② -2,000                      ( ) ③ 25  
( ) ④ 50,000                      ( ) ⑤  $-2000/50000$

11. 직선의 방정식  $y=5 + 0.5x$ 에서  $x$ 의 변화는  $y$ 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x$ 의 값이 10에서 20으로 변화하였을 경우 ( $y$ 의 변화율) $\div$ ( $x$ 의 변화율)의 값은 얼마입니까?

- ( ) ① 2                      ( ) ② 1                      ( ) ③  $3/4$   
( ) ④  $1/2$                       ( ) ⑤ -1

12. 다음 두 방정식의 교점( $x$ ,  $y$ )은 어느 것입니까?

$$x-3y=-7$$

$$x+4y=14$$

- ( ) ① (1, -3)                      ( ) ② (2, -3)                      ( ) ③ (3, 3)  
( ) ④ (2, 3)                      ( ) ⑤ (0.5, 0.5)